

상임이사제 도입 등 정관 개정

이사회 승인 ... 총장임기 보장, 교비 환수 대책 마련

제202회 학교 법인 이사회에서 상임이사제 도입과 총장 임기보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관개정과 함께 교육부 교비 환수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12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이사회는 안건은 △정관개정과 임원 해임 및 선임 △교육부 교비 환수 관련 시정조치 사항과 그에 따른 대책 △신임교수 23명 임용 및 채용 관련 교원인사 △필동 매입 건물 대수선 공사 승인 등이었다.

정관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임이사제는 이번에 도입된 것으로서 이사장을 보좌하고 법인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학교에 두는 제도를 말한다.

대학총장을 당연직 이사로 명

시한 것과 총장의 보직 임기가 보장된 것도 주요한 사항이다. 이로 인해 흥기삼 총장의 정년은 총장 임기가 끝나는 2007년 2월 까지다.

또한 정각원장의 자격을 승려자격을 가진 부교수 이상의 교원 외에도 승랍 30년 이상의 대한불교 조계종 재직 승려도 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업무의 성격상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각급 부서장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는 항목이 신설됐다.

한편 교육부의 교비환수 관련 시정 조치사항도 보고됐다. 재단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교비 전용과 관련 전임 승석구 총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현 총장은 경고 조치키로 했다. 또한 사학진흥기

금 68억 4000만원 상환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10일 최종 확정 통보한 교비 금액 341억 5900만원에 대한 환수 계획도 통과됐다. 우선 법인 재산 가운데 100억을 학교 세입으로 2005년 2월까지 환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2006년 12월까지 학교 세입으로 회계조치하기로 결정됐다.

그 외에 2월에 매입한 필동 중

대부속병원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필요한 설계 및 구조안전 진단에 필요한 예산도 승인됐다.

또한 지난 7월에 열린 이사회에서 서정대, 서동각 이사 후임으로 신임 이사에 중앙중회의원 해림스님과 이재창 명예교수가 만장일치로 선임됐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영상문화분야 특성화 우수대학 신청

충무로·강남 클러스터 구축 추진

우리학교가 충무로·강남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상문화콘텐츠 분야의 창의적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충무로·강남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나아가 동북아 영상문화벨트의 허브로 성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지난 16일 본교는 2004년도 특성화 우수대학 지원사업에 '충무로·강남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영상 CC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특성화사업 선정은 기획심

사팀과 특성화 추진단에서 영화영상·멀티미디어·네트워크의 통합을 추진해 진행된 것이 특징이다. 이와 관련해 유광호 기획심사팀계장은 "세계가 창의적 문화산업 사회로 전환 중인 만큼 영상문화 콘텐츠 분야가 각광 받고 있다"며 기업, 대학, 연구소가 협력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기술개발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이번 특성화사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특성화 사업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는 △교육시스템 선진화 △연구역량 극대화 △산학협력 활성화 △효율적 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또한 특성화 추진 개별사업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평가하여 향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자체평가를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2004 특성화 우수대학 지원사업은 수도권 소재 72개 대학 중 25개 대학에 6백여원을 지원하는 수도권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의 하나이다.

이는 지난해까지 수도권·비수

도권 구분없이 실시했던 '공·사립대 특성화' 및 '국립대 발전계획 추진 사업' 등이 폐지되고 지방대는 '혁신역량강화사업(NURI)'을, 수도권 국·공·사립대는 '대학 특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대학별 지원액은 50억원 이내로, 평가 결과와 학교 규모, 신청 금액 등을 감안해 차등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번에 교육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교원보육의 평가반영 비중을 대폭 상향하고 학생정원 감축을 평가 항목에 추가했다.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특성화 프로그램 65%와 교수업적 평가, 교원 확보율, 정원 감축, 장애인 교육여건, 연구비 관리 등 정책 유도지표 35%이다. 교육부는 2004년도 특성화 우수대학 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을 다음 달 중으로 발표 할 예정이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1학기 수시 경쟁률 12.34대 1

2학기 수시 원서접수 다음달 1일부터

본교 2004학년도 1학기 수시모집 결과 12.3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번 모집은 논술과 학생부 성적 등을 통해 총 292명을 선발했으며 국어국문학과가 38.8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2학기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다음달 1일부터 8일까지 본교 홈페이지와 www.uway.com을 통해 100% 인터넷으로 원서접수가 진행된다.

2학기 수시모집 인원은 총 886명

을 선발하며 △일반우수자 △불교계 추천 △군경·소방·교도·유공(독립)자 (손)자녀 △문학(체육)특기자 등을 모집한다. 단, 불교계 추천 및 군경·소방·교도·유공(독립)자 (손)자녀 전형은 실업계 고교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다.

전형방법은 논술고사와 학생부 성적, 면접고사로 이뤄진다. 전형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국대학교 입학안내홈페이지(www.ipsi.dongguk.edu)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축구부, 전국체전 서울시 대표권 획득

본교 야구부(감독=김학용)가 오는 24일부터 25일간 열리는 '전국대학추계리그전'에 출전한다.

이번 대회는 4개의 조별리그로 이루어지며 총 30개 대학이 출전했다.

본교는 △한라대 △중앙대 △경성대 등 7개 팀과 같은 조이며 서울 구덕야구장에서 오는 24일 오전 9시 30분에 동의대와 첫경기를 갖는다.

한편, 본교 축구부(감독=김용

해)가 지난 6월 27일 열린 '제23회 서울시 시장기대회'에서 우승했다.

이번 우승으로 '제85회 전국체전대회'에서 서울시 대표권을 얻었으며 오는 10월 경기를 가질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김용해 감독은 "서울시 대표 출전은 창단 이래 처음 있는 일이며 본교의 위상을 높이는 데 한 몫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웃음처럼만 ... 이 가을 첫결실, 환한 웃음 주렁주렁, 웃음처럼만 그대 앞길도 휘어휘어. - 졸업식 추억담기 한창인 필경도 풍경
정기훈 사진부 책임기자 tal@dongguk.edu

경주캠 제2기숙사·복지관 준공

592명 수용 ... 장애인 전용시설 갖춰

경주캠퍼스 신축 기숙사와 복지관이 준공됐다. 이에 경주캠퍼스 신축기숙사 1층 대회의실에서 23일 오후 2시에 준공식을 갖는다.

이번에 준공된 신축기숙사와 복지관은 지난 2000년 7월 착공했으나 공사 중 유물이 발견돼 지연되어왔다.

신축기숙사는 지하 2층 지상 6층으로 건립되었으며 296개의 기숙사실에 세부 집기 및 편의시설 설치도 마무리 돼 이번 학기부터

실질적으로 운영된다.

신축 기숙사는 총 592명의 원생을 수용할 수 있으며, 현재 입주할 학생들이 모두 선발된 상태. 특히 장애 학생을 위한 △전용 기숙사실 △점자블록 △진입경사로 △전용 화장실 △전용 엘리베이터 등을 갖추었다.

한편 복지관은 지상 2층으로 1층은 △대강당 △복지매장이, 2층은 기숙사 원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100여대의 차량 주차공간이 있어 각종 대내외 행사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해 총무처 최수호 계장은 "신축기숙사 및 복지관은 경주캠퍼스 재학생들의 복지시설로 신입생유치 및 국내외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직인사

본교 보직인사가 다음과 같이 단행됐다.
△기획인사처장=박종훈(운리문화) △연구처장=유석천(경영학과) (이상 8월 1일자)

등록금 납부 오는 31일까지

분할납부는 30일부터 이틀간

2004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제일·조흥 은행과 농협 전국 각지점 인터넷 뱅킹 △은행에 설치된 자동화 기기(ATM, C/D)를 통한 납부 △학자금 융자 △분할납부 등이 있다.

분할 납부란 등록금의 1/2 이상을 1차 등록기간에 먼저 납부하고 잔액은 2차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분할 납부는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재무회계팀에 신청하며 신청시 준비물은 △분할 등록금(1/2) △보호자 인감증명서 1통 △본인 도장 및 보호자 도장 등이다.

분할 납부의 1차 등록 기간은 30일부터 31일까지고 2차 등록 기간은 10월 6일부터 8일까지이며 장소는 본관 1층에 위치한 제일은행 동국대 출장소이다.

역경원 개원 40주년

역경원(원장=김성구)이 지난 달 21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원 40주년 기념 법회를 가졌다. 역경원은 지난 1964년 본교 부설기관으로 개원한 뒤 합천 해인사의 고려팔만대장경을 국역했다. 역경원은 팔만대장경의 한글화 작업을 시작했는데 참여한 한학자들은 성낙훈, 고형근, 이종익, 김달진 등이 있다. 또한 당대의 학승이자 선승인 탄허, 성철, 관음스님은 물론 조지

훈, 이은상, 양주동 등 시인과 국어학자들이 뜻을 살피고 문장을 가다듬으며 한글맞춤법을 담당하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역경원은 작업을 시작한 지 37년만인 지난 2001년 대장경의 국역을 완료했다.

역경원은 현재 318권으로 구성된 한글대장경을 대중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10년 계획으로 한글대장경 전산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신의 심장, 두근거리십니까?

여러분은 올해 초 계획했던 목표, 다졌던 각오들을
지난 한학기 동안 얼마만큼 이루셨나요.

아마 지금의 자리에 만족하는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2004년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다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일들을 펼쳐나갈 미래를 생각하면 떨리지 않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의 떨림을 간직하며 2학기를 생활해 나가는 것입니다.

2004년 2학기 시작, 당신의 심장은 기억할 것입니다.

‘총장장학’ 수혜 기준강화·금액축소

지난 4월 설문조사 결과 반영 ... 일반학생으로 수혜대상 확충

총장장학제도의 지급 비율과 대상이 2학기부터 대폭 변경됐다. 지난 학기까지 지급된 총장장학 금액을 살펴보면 우리학교 전체 장학 수혜 인원의 15.52%를 차지했으며 그 금액은 지급되는 총 금액 중 9.94%를 차지했다.

또한 수혜성적 기준이 17(15)학점 기준에 평균 평점 2.0인 자에 한해 장학금이 지급됐다.

그러나 올해 2학기부터는 총장 장학금을 전체 장학금액에서 그 비율을 낮춰, 해당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학생회 지급 별도 일정 수준 감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005학년도 1학기부터는 총장 장학 성적 기준이 타대학에 비해 낮다는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장학금 지급 성적 기준이 평균 평점 3.0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총장장학제도의 변경 이유

에 대해 학생처의 한 관계자는 “우리학교의 총장장학 지급 비율이 타 대학에 비해 월등히 높게 책정됐으며 이에 따라 일반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 수혜률이 낮아져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학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학생처에서 전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장장학 관련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중 72.6%의 학생이 앞으로 총장장학제도의 내용에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응답했다.

세부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83.9%의 학생들이 성적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93.9%의 학생들이 총장장학 지급 비율을 조정해 일반 학생들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장학제도로 변경, 운영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번 제도 변경과 관련해 학생회의 한 관계자는 “사전에 이와 관련한 논의 자리도 없이 일방적으로 작지 않은 금액을 감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학생처에서는 앞으로 이번 제도 변경에 따른 조정 장학금액을 총장장학 수혜 대상자가 아닌 일반

학생들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따라서 조정 금액을 다음 학기에는 학업 지도교수 추천 장학제도로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2005학년도부터는 교육 강화 프로그램과 연계해 시행할 계획이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구분	지급 대상	장학금액(변경후)
총장(2)	총학간부, 총여학생회장, 졸업위원장, 교자편입위원장, 동아리연합회장, 불교학생회장, 기숙사생장, 단과대 학생회장, 학군단 명예위원장, 응원단장, 부단장	120만원
	단과대 부학생회장	70만원
	총대의원회 간부, 단과대 대의원장	-
총장(3)	동연분과장, 불교학생회 구도부장, 불교합창단장, 전공학생회장, 졸업준비위 간부	70만원
총장(4)	총여학생회 간부, 교자편입위원, 동연간부, 단과대 집행부, 학군단 명예위원, 종대장, 응원단원	40만원
총장(5)	학교대표	10만원



혜화버드 ... 지난 16일 혜화관 옆 야외 휴게실에 테이크아웃 커피점이 생겼다. 커피점 개점 시간은 오전 8시이며 폐점 시간은 오후 9시이다. 사진은 본교 학생이 점심식사 후 커피를 주문하는 모습이다.

황주상 기자
hjs228@dongguk.edu

회전무대

성 의와 무성의 사이

0...성적공시기간에 어느 학생이 모 교수의 무성의에 뒷통수를 맞았다는데.

알아보니 어느 학생이 성적공시 마지막 날, 성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러 교수연구실에 가보니 아무런 공고도 없이 개인업무로 출국했기 때문이라고.

총장이나 공시기간 전에 학생들에게 일정을 알려 착오가 없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어려운 경제상황에 또 하나의 절약정신, 성적공시기간 무단 결약(!)”

도서관의 눈물

0...중앙도서관에는 비가 오는 날이면 양동이도 필요하다는데.

이유인즉 중앙 도서관 옆 출입구에 비가 새고 있는데도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좁은 출입구에 양동이까지 받쳐놓는 것이라고.

학생들이 출입하는 공간인 만큼 이에 대한 보수가 시급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기왕이면 우리 중도 눈물쯤 닦아주지(!)”

서투른 방문

0...학부생과 대학원생 사이에 최소한의 예의가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는데.

알아보니, 학부생들이 주로 대학원생들이 사용하는 연구세미나실에서 음식을 시켜먹거나 시끄럽게 떠들어 마찰이 생기는 것이라고.

대학원생을 위한 공간이니 만큼 학부생들 스스로가 출입을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대학원생 왈, “후배님들, 여기는 쉼쉼조입니다(!)”

믿음 철

0...학내 일부 초록색 게시판의 이용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알아보니 혜화관과 교수회관 사이의 게시판에 도색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게시물 부착을 금지했음에도 아무런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데.

개강하면서 게시판 이용률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학교는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일부 초록색 게시판에 도색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서로간에 깨져버린 신뢰는 ...(!)”

상반기 감사결과 대부분 징계

교지편집위원회와 학복위만 징계없어

2004학년도 상반기 감사 결과 모든 단과대 학생회가 징계를 받았다.

이번 상반기감사는 36대 총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동우·중문4) 산하 중앙특별감사위원회(이하 감사특위)가 중앙자치기구와 비대위체제 단과대를 감사했으며 나머지 단과대들은 자체 감사로 진행됐다.

감사결과 △졸준위 △교지편집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단위들이 징계조치를 받았지만 지난 감사와 다르게 무기한 예산정지를 받은 단위는 없었다.

살펴보면 △동아리연합회 예산정지 4주 △이과대 예산정지 4주 등 5개 단위에 대해 예산정지 징계조치가 내려졌으며 사과대 등 3개 단위는 엄중경고, 졸준위 등 3개 단위는 경고조치를 받았다.

한편 총여학생회는 비대위조차 구성되지 않아 감사대상에서 제외됐다.

황주상 기자
hjs228@dongguk.edu

〈표〉상반기 통상감사 결과

징계내용	단 위	시행세척 및 징계사유
징계없음	교지편집위원회 학복위	
주의	문과대 생자대 사법대	감사시간 미준수 감사자료내용 미비
경고	졸준위 법대 공과대	자료제출 시한 넘김 감사자료 일부 미제출 감사자료 내용 미비
엄중경고	경영대 사과대 불교대	영수증 누락 월별 정산서 미제출 자료제출 시한 넘김
예산정지 2주	총학생회 정산대 예술대	감사자료 일부 미제출 감사자료 내용 미비 집행부서장이 올바른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음 피감사 주체 면담감사 불참
예산정지 4주	동연 이과대	예산착용에 있어 오차 발생 예산이 범한하고 비효율적 집행

고시장학생 선발 시험 매달 응시체제로 변경

9월 사법시험반 장학생 선발 시험이 다음달 4일 오전 10시부터 정문문화관 401, 402, 403에서 각각 진행된다.

그동안 계산고시학과 사법시험반 장학생 선발시험은 한 학기에 한번 실시되었다.

이러한 제도를 매달 응시체제로 변경한 이유는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번 시험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일정 금액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험의 대상자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토익 점수가 700점 이상인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27일 오후 5시까지 계산고시학과 2층 조교실에서 실시된다.

준비해야 할 것은 △사진 1매 △개인 통장 번호 △토익 점수 사본이다.

시험 과목은 △1학년=민법, 영어 △2학년=민법, 헌법 △3, 4학년, 졸업생=헌법, 형법, 민법이며 응시료는 현원이다.

자세한 문의는 계산고시학과 조교실(Tel. 2260-3571)로 하면된다.

원총 기획강좌 실시

시대 담론 속 사상과 조류 접하는 기회 될 것

대학원 총학생회(회장=신정민·국어국문학 석사과정)에서 오는 10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기획강좌를 실시한다.

강좌는 ‘탈근대와 맑스주의’라는 주제아래 △1강=맑스주의의 형성과 기본개념 △2강=맑스주의 비판이론의 발전 △3강=기드보르와 국제상황주의자들 △4강=알튀세르의 맑스주의 혁신성 △5강=푸코의 맑스주의 유희 △6강 =틀리즈/가타리 와 포스트 구조주의 △7강=네그리와 자율주의적 맑스주의의 순서로 진행된다.

신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8일까지 대학원 총학생회실에서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받았으며 약 40여명이 신청했다. 강의를 학술문화관 S동 213호에서 열린다.

강사는 조정환 도서출판 갈무리 공동대표로 서울대 국어국문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성공회대 대학원에서 강의 중이다.

이번 기획강좌는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매 학기마다 실시해 온 것으로 올해는 다른 해와 달리 한 학기에 두 번씩 4번 열릴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신정민 대 학원 총학생회장은 “학생들에게 시대적 담론이 되고 있는 사상이나 조류에 대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준비했다”고 말했다.

24일 교수·직원 퇴임식

2004학년도 장년교수·직원 퇴임식이 내일(24일) 11시 교무위원회실에서 열린다.

이번 퇴임식은 가족들이 참석할 가운데 열리며 흥기삼 총장이 공로패를 전달한다.

퇴임교수는 김영정(회계학) 김규석(건축공학) 서영석(국어국문학) 김희오(국제관계학) 강병수(한의학) 교수이며 퇴임직원은 총무팀 권선수 제3컴퍼스 건립추진단 최창선 본부장이다.

금주의 식단

	동국관	상록원	교직원
월 (8/23)	원장찌개백반 (1600) 제육콩나물볶음 (2000) 치킨볶음밥 (1800)	부대찌개 (1800) 오징어가스 (1800) 제육볶음 (2000)	원장찌개 (3200) 뽕배기불고기 (3800) 누지볶음 (3800)
화 (8/24)	육개장 (1800) 후루조탕수육 (2200) 해물짬뽕 (2000)	설렁탕 (1800) 돈육피망김치 (2000) 김치볶음밥 (1800)	원장찌개 (3200) 육개장 (3500) 비빔밥 (3500)
수 (8/25)	갈비탕 (2000) 닭도리탕 (2000) 비빔밥 (1800)	갈비경단 (1800) 두부김치 (2000) 치킨샐러드 (2000)	원장찌개 (3200) 돈가스 (3500) 가제마구이 (3500)
목 (8/26)	비치리순두부찌개 (1800) 소고기볶음밥 (1800) 꾸꾸미제육볶음 (2000)	오징어불고기 (2000) 참치볶음밥 (1800) 얼무비빔밥 (1800)	원장찌개 (3200) 날치알살밥 (3500) 돈갈비찜 (3500)
금 (8/27)	너비아니백반 (1800) 오징어김치볶음 (2000) 소고기카레 (1800)	꼬치어묵우동 (1800) 닭갈비 (2000) 라조육 (2000)	원장찌개 (3200) 감자탕 (3500) 해물자장밥 (3500)

금주의 추천메뉴

얼무비빔밥 (상록원 목요일 석식)

얼무비빔밥은 매콤한 고추장에 얼무 특유의 씹새로운 맛이 어우러져 식욕을 돋구는 데 좋다.

얼무김치에는 비타민A의 전구물질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 엽산 등이 많이 들어있어 더위에 지친 몸의 피로를 풀어준다.

동악게시판

취업

(주)막스만로지스틱스
모집부서: 항공 수입 업무, 해외영업
응시자격: 영어 구사 능력
접수기간: 8월 31일까지

KB자산운용(주)
모집부서: IT
응시자격: 전산계열 전공자
접수기간: 8월 26일까지

삼화유업
모집부서: 연구원
응시자격: 화학, 화학공학 관련 전공
접수기간: 8월 31일까지

제일나이텍주식회사
모집부서: 국내영업부
응시자격: 자연과학부에 한함
접수기간: 9월 4일까지

(주)BSM 전자
모집부서: 고객상담
응시자격: 성실히 일하실분
접수기간: 8월 31일까지

(주)수목건축사사무소
모집부서: 부동산 및 건축 컨설턴트
응시자격: 건축관련학과, 부동산학과
접수기간: 8월 31일까지

(주)웨디뉴스
모집부서: mobile/internet 개발자
응시자격: 일본어(비즈니스레벨 이상) 영어(회화레벨)
접수기간: 8월 31일까지

(주)키츠
모집부서: 시스템 컨설팅 및 개발
응시자격: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 계열 학과
접수기간: 8월 27일까지

가이아 엔시
모집부서: 경영컨설팅,마케팅,광고홍보
응시자격: 경영학과,의료정보학과 전공자 출신 우대
접수기간: 9월 4일까지

광진구청
모집부서: 청소년 교향악단
응시자격: 예능분야
접수기간: 8월 31일까지

LG 텔레콤 안양영업국
월급 : 900,000원
근무기간 : 8월 20일~11월 30일
근무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접수기간 : 8월 25일까지
문의 : 010-8080-3425

KOTRA
조건 : 여, 엑셀사용 가능자
월급 : 950,000원
근무기간 : 8월 24일~12월31일
근무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접수기간 : 8월 23일
문의 : 02)3460-7227

한국광학기협회
조건 : 컴퓨터 능숙자 및 정보자료 수집 조사 경력자 우대, 회계 관련 유경험자 우대
시급 : 5,000원
근무기간 : 6개월(2004년 9월 1일-2005년 2월 28일)
근무시간 : 오전 9시~오후 6시
접수기간 : 8월 25일
문의 : 02)581-2321

퀀타일
조건 : 남(이부대생으로 장기근무할 수 있는 자), 운전
월급 : 800,000원
근무시간 : 오전 9시~상당 후 조정
접수기간 : 8월 27일
문의 : 02)539-4325

이주의보고역사

1987년 9월 1일
개교 100주년 준비위 발족

개교 1백주년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한편 본교의 발전과 영광을 되찾기 위한 중앙기사를 계속 발행한다는 취지의 본교 「개교 1백주년 준비위원회」가 지난달 28일 정식 발족되었다.

교수세미나실에서 있던 이날 발족식에서 이지관 총장은 각대학별로 선임된 30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사를 통해 「과거를 거울 삼고 미래를 설계해 갈 때 국가뿐만 아니라 학교도 발전과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여러분들은 격식에 얽매이지 말고 내실을 기해 본교가 도약의 길로 나아가는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1993년 8월 25일
남경·청화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체결

본교 정몽길(정치외교학)기획조정실장과 김영철(경주캠퍼스 중문학)교수는 지난달 27일부터 8월3일까지 중국을 방문. 남경대학 및 청화대학과 각각27일, 29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했다.

본교는 이 두 대학과 1년간 체제비 전액 지급 하에 정기적으로 교수등 학자들을 상호 파견하여 학술교류 영역을 확대 심화시키고, 석·박사과정 학생 상호 교류와 문헌·자료의 교환을 합의했다.

청화대학과 남경대학은 작년 중국 교육부 평가에서 3위 이내에 들었던 저명한 대학이다.

학자금 용자제도 변경 혼란

변경내용 사전 홍보 부족 ... 추가신청 고려 중

학자금 용자 신청 제도가 이번 학기부터 새롭게 변경됐으나 이에 대한 사전 공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학기부터 은행을 통한 학자금 용자신청을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의 보증인이나 총장 날인 추천서가 없이 일괄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게 했다. 또한 대학에 신청서를 미리 제출한 뒤 각 대학 등록금수납 대행 은행의 인터넷에 접속해야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이로써 은행은 대학에서 보낸 신청서 명단과 인터넷 가입 신청자가 일치하는지를 조회해, 본인입이 확인 될 경우 대출을 해주게 된다. 우리학교의 경우 변경된 제도를 처음 실행하는 것을 감안해 농업

측만 신규 제도를 적용해 지난달 23일부터 2주간 미리 희망자 신청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 내용이 신청 시작 하루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되는 등 학생들에게 사전에 공지되지 않아 대다수의 학생들이 신청 기간을 놓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학기에 대비해 30% 채 안되는 학생들이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라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장학과 박훈선 계장은 "여러 학교의 장학과에서 교육부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반발하고 변경된 제도에 세부 사항을 조정하느라 공지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한편 장학 기간 동안 사전에 농

협 학자금 용자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오는 27일까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한미, 조흥 은행 학자금 용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교육부는 제도 변경 사실을 뒤늦게 알린 것을 감안해 일부 은행에서 추가로 용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학자금 용자의 경우 연 금리가 4%로 다른 대출에 비해 부담이 적어 학생들의 수요가 많다.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과 이에 대한 사전 홍보 미흡으로 불가피하게 한 학기를 휴학해야 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 각 대학, 은행에서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200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열려

서울캠 박사 54명 석사 485명 학사 461명 배출

200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20일 중강당에서 열렸다. 김현해 이사장과 홍기삼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진 이번 학위수여식은 △학사보고 △총장식사 △이사장식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학사 461명 △석사 485명 △박사 54명 등 총 1000명이 학위를 받았다. 또한 각 단과대 및 기관 추천에 의해 선발되는 공로상은 어재원(법4)군이 수상했다.

이날 홍기삼 총장은 "자기발전을 위한 노력을 끝없이 경주해야 한다"며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통해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조화롭고 협동하는 미덕을 키워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김현해 이사장은 "동국대학교를 떠난 후에도 늘 동국 가족이 된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교가 한 축을 대표하는 명문 사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모교사랑을 당부했다.

오늘부터 이틀간 휴학·특별시험 접수

2학기 휴학 신청

• 기간 : 8월 23~25일
• 대상 : 가정형편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 할 수 없는 학생 또는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
• 신청 서류
일반휴학신청서 : 보호자가 연서한 일반휴학원, 휴학연장원(휴학연장서) 1부
휴학연장자 : 휴학연장서 휴학연장원 1부 (학교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유의사항 :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기를 원칙으로 하며,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6학기 초과할 수 없으며 (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1년 추가 연장가능), 일반휴학 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적됨

2학기 특별시험 접수

• 접수장소 : 소속단과대학 교학과
• 기간 : 8월 23~25일
• 대상 : 2004학년도 2학기 1학년 재학생
• 시험과목 : 컴퓨터활용과 실습2, 영어회화2, 실용영어2
• 시험일 및 응시료 : 8월 28일, 과목당 75,000원
• 접수방법 : 특별시험원서를 출력하여 작성 및 사진 부착 후 접수처에 제출
• 합격자 발표 : 9월 2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25~27일까지 진행되며 3,4학년 복수전공 신청 결과는 오는 26일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악로 미대사관의 일방 통보



미국비자

"URP가 폐지 됐다고요? 그럼 미국에 갈 수 없는 건가요?"

URP를 신청하기 위해 학생 상담센터를 찾은 최 양. URP가 폐지됐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해 한다. 지난 방학 때

최 양과 같은 처지에 놓였던 학생들은 한 명이 아니었다. 대학추천프로그램(URP)은 한국의 대학생이 미국 방문 비자가 필요할 때 학교의 보증으로 인터뷰가 면제되는 제도이다. 이를 이용하면 미 대사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 이용했다. 지난해에만 595명, 올해에도 폐지되기 전까지 189명의 학생들이 URP를 신청했을 정도다. 하지만 지난 6월 17일 미 대사관은 URP를 폐지했다. 특정 프로그램에 인력이 불려 일반신청자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을 막고 모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앞으로 비자신청자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한 후 대사관을 방문해 인터뷰에 응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학생상담센터의 관계자는 "미대사관에 인터뷰를 신청하려면 한 달 이상의 기간이 걸려 당혹스러워 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URP가 여름방학의 시작과 함께 폐지돼 방학을 이용해 해외로 나가려는 학생들의 불편은 더욱 가중되었다. 수요가 많은 만큼 미대사관에서 실시하는 인터뷰에 걸리는 시간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미대사관의 일방적인 통보식 업무처리이다. 이번 URP 폐지는 지난 6월 18에 공문이 도착하고 21일부터 시행됐다. 학내 구성원들에게 이를 알릴 수 있는 기간이 단 3일뿐이었다는 말이다. 미대사관이 URP 폐지와 관련해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알렸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URP 폐지가 일급기밀이 아닌 이상 숨겨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퇴임 교·직원 인터뷰

퇴임식을 하루 앞둔 건축학과 김규석 교수, 권선수 총무팀 직원, 제3캠퍼스 건립추진단 최창선 본부장을 만나 그간 학교생활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 보았다.

- 회계학과 김영정 교수는 개인사정으로 인터뷰하지 못했다 -

"학교 떠나도 제자 위한 연구 계속할 것"



건축학과 김규석 교수

"젊은이들과 건축학을 함께 공부해보고 싶다"는 작지만 큰 소망 하나로 34년째 교단을 지켰던 김규석 교수. 텅 빈 책장과는 대조적이게도 그의 연구실에는 연구 자문을 하기 위한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16일 김교수의 연구실에 찾아가 그를 만나보았다.

다. 이에 앞으로도 개인적인 건축학 연구를 꾸준히 하면서 간간히 학생들의 연구를 자문해주고 싶다.

-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 약 20년 전 학생들과 건축 내진 설계 연구 할 때였다. 연구에 대한 열의 하나로 학생들과 새벽 2, 3시까지 연구실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밤새 연구했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그 당시만 해도 12시가 넘으면 교문을 모두 잠궜던 관계로 학생들과 담을 넘어 귀가했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난다.

- 제자들에게 한마디.
= 요즘 학생들은 너무 평가위주 사회에 찌들어 대학의 낭만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여유 속에서 새로운 문화가 창출될 수 있다. 마음에 여유를 갖고 독서를 즐길 줄 아는 대학생이 되라. 그러면 졸업 후에 사회에 나가서도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가꿀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이다.

- 어느새 퇴임을 맞이한 소감은.
= 처음 교단에 섰을 당시 학교 내 전체 교수가 60명도 안되는 열악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교수와 학생들의 수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학습 여건도 많이 개선된 것 같아 안심이요. 하지만 더 많은 제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쉽

"학내 곳곳 내 손길이 안닿은 곳이 없네"



총무팀 권선수 직원

서글서글한 미소, 수수한 옷차림에 까무잡잡한 피부. 그야말로 흙냄새가 느껴진다. 20여년을 하루처럼 학내 환경 미화를 관리, 감독하며 캠퍼스 곳곳을 자기 집보다 소중히 가꾸어 온 사람이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듯 퇴임 후에 새로운 인생 설계에 여념이 없다는 총무팀 권선수 씨. 그에게서 그간 학교생활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재직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 몇년 전만 해도 축제가 끝나면 학생들이 직접 쓰레기를 치우는 것을 당연시했다. 어떤 학생들은 축제 후 환경 미화원들께서 수고하신다고 술자리를 마련해 대접하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예전에 비해 이러한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 기억에 남는 추억담은.
= 3년 전 폭설이 내렸을 때 학생들의 등교를 위해 밤새 열화칼슘과 소금 600포 가량을 뿌리며 다녔다. 손, 발이 꽁꽁 얼 만큼 날씨가 추위 고생했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뿌듯하다.

- 떠나면서 학생들이나 후배 직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 내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도 돌이켜보면 모두 남을 위한 삶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만큼 작은 일이라도 남에게 미루려는 습관은 버려야 한다. 내가 안하면 모두가 피해를 본다는 생각으로 하루 하루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 학교에서 주로 담당했던 일은.
= 20여년간 학내 환경미화를 감독하면서 청소하는 분들을 관리해왔다. 하지만 이분들의 대부분이 용역업체에서 파견돼 근무하고 있어 관리가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만큼 학내에 내 손길과 발길이 직접 닿지 않은 구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0년 동악사랑, 떠나도 짝사랑 이어질 듯"



최창선 본부장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인생의 절반도 넘는 40여년을 한결같이 동악과 함께 했으면서도 떠나기 아쉬워 학교를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어지지는가. 퇴임을 불과 며칠 남겨둔 그 날도 본관과 교수회관을 수십 번 오가며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는 제3캠퍼스건립추진단 최창선 본부장. 그를 만나 퇴임 소감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 64년 우리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해 졸업 후 71년부터 교직원 생활을 했다. 그간 학사업무부터 시작해 기획실, 총무처를 거쳐 지금의 제3캠퍼스건립 추진단 업무 담당까지 오게 됐다. 무엇보다 불교병원 건설 본부장으로 지내면서 국내 최고 시설의 병원을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일했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 기억에 남는 뿌듯했던 일이 있다면.
= 10여년전 국내 최초로 교육부 주관 교육개혁박람회가 개최됐을 때, 코엑스 전시장에서 학교를 홍보했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외부에 나가 학교의 역사를 알리면서 다시 한번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겼던 기회가 됐던 것 같다.

- 퇴임 후 계획은.
= 그동안 학교 일에 치우쳐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갖지 못했다. 앞으로는 개인적인 시간도 즐기면서 남을 위해 봉사하는 기회도 많이 만들었으면 한다.

김지은 기자
bob83@dongguk.edu

- 학교를 떠나는 소감은.
= 학내 구성원 전체의 지원으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마치고 떠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학교를 떠나도 동국 발전을 위해 일하는 학내 주체들에게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 40여년간 학교에 몸 담았는데.

www.dongguk.edu

깊은 동쪽에 있다
2004 동국 백주년

삶과 지구를 생각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공생(共生)을 생각합니다.
동양과 서양의 상생(相生)을 생각합니다.
전통과 첨단을 생각합니다.
역사와 미래를 함께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이들이 더불어 행복한 Win-Win의 내일을 생각합니다.

100년의 아침
그리고 스무살의 아침-
동국대학교

"공부하는 대학, 동국대학교... 업그레이드는 계속됩니다."

◆ 교육강화를 위한 교육기획단 설치
◆ 1학년 단과대 수석 미국 학술문화연수생 파견(20명)
◆ 해외 자매대학 교환유학·어학연수·학술문화연수생 파견(100여명)
◆ 해외 우수 IT교육기관 연수생 파견(50명)
◆ 2004년도 교원 임용고사 서울지역 대학 중 최고 합격률

◆ 정보통신부 IT / 비IT학과 교과과정 개편지원사업 선정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 선정
◆ 국내 최초의 공학교육인증 대학
◆ 최첨단 시설의 경주캠퍼스 제2기숙사 대학 중 최고 합격률

2005학년도 신입생 모집일정

【원서접수】
■ 수시2학기 : (서울) 2004.9.1(수)~9.8(수) (경기) 2004.9.1(수)~9.14(화)
■ 정 시 : (서울) 2004.12.22(수)~12.27(일) (경기) 2004.12.22(수)~12.27(일)
※ 입학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합니다. (www.dongguk.edu / www.uway.com)
※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문 의】
(서울캠퍼스 학생선발실) 02)2260-3031~4 / www.dongguk.edu
(경주캠퍼스 학생선발실) 054)770-2031~4 / www.dongguk.ac.kr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 SINCE 1906



역사교육과 교수임용 논란

평가방법 · 절차의 수렴 필요

추천 2순위 후보 선정 문제 발단 ... 학교측 "절차상 문제없다"

참 마음과 행복

우리는 흔히 '참 마음'과 '거짓 마음'을 말한다.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행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인데, 말이 바르지 않거나 행위가 올바르지 못하거나, 또는 사된 생각을 '거짓 마음'이라고 한다.

'거짓'은 '분례'가 아닌 '가짜'이고, 그래서 불만족스럽다(苦).

불만족(苦)은 모든 것이 조건적이고 연속적(緣起)임을 모르는 데(無明)서 온다고 한다.

모든 것을 연기(緣起)의 결과로 아는 것이 제대로 아는 것(如實之見)이고, 바로 '깨달음'(覺)이다. '연기로 안다'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고'(無常), '실체가 없기 때문이며'(無我), 그래서 '불만족스럽다'(苦)는 것을 아는 것이다.

"영원하지 못한 것은 진실로 조건지어진(합성된) 것이다. 그것은 생기고 없어지는 본성을 가진다. 그것들은 생겨났다가 없어진다. 따라서 그것들이 평정되면 평온하다."

그러므로 불교의 무상·무아·불만족이라는 '세 가지 진리 인종'(三法印)은 연기의 직접적인 추론 결과이고 우리를 참 마음, 다시 말해 평온·만족·행복, 깨달음으로 이끈다.

지금 불행한가? 그렇다고 한다면, 진실로 불만족과 불행은 '느킨다'면, 그렇다 면 행복해질 것이다.

거짓 마음, 몸으로 짓고 말로 지으며 마음으로 지은 내 행동과 행위가 불만족스러움으로 이끈 것임을 안다면 나의 행동과 행위를 수정함으로써 참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불만족과 불행을 객체적인 환경이나 대상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불행'을 제대로 느낀 것이 아니다.

'모든 것'에 대해 묻는 생문 바라문에게 '주체인 인간(六根)과 '객체인 대상(六境)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계(十二處)라고 거침없이 대답한 분다의 말은 참으로 친절하다.

유 혼 우

문과대 철학과 교수

역사교육과(이하 역교과) 교수임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하는 등 교수임용제도에 대한 논의의 수렴이 시급해 보인다.

이번 논란은 역교과 교수들이 학교측의 교수임용절차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시작됐다. 역교과에서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학교측이 역교과 자체평가점수가 낮은 후보자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동양고대를 담당교수가 절실함에도 한국고대를 전공한 후보를 임용해 학생들의 수업권에 피해를 끼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역교과 교수들은 "현재 한국사 담당교수는 두 명이고 동양사전공 교수는 한 명뿐인데도 또다시 한국사 전공 교수를 선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종훈(윤리문화학) 기획인사처장은 "2명의 추천 후보 중 한 명을 선정했을 뿐이고, 면접심사에서 B교수가 A교수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B교수는 동양사와 관련된 논문도 썼을 만큼 강의 능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B교수는 학부수업인 동아시아 문물교과, 일본사교육론, 중국사교육론 등 6개 과목과 대학원 수업인 동양 지역사 연구, 동서 문물 교류사 강의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역교과 학생회(회장=김의창·역교3)측은 "B교수가 임용되면 동양사과목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권에 문제가 있다"며 "B교수가 부담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역교과 교수들은 "이번 임용문제에 대해 학생들에게 가장 미안하다"며 사죄하는 뜻으로 지난 18일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하지만 단식농성으로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2일만에 끝냈다.

역교과 교수들은 교수초빙 심사 가운데 논문 평가방법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수임용 외부논문심사 후보자 선정작업에 참여했던 모 교수는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타대학과 학술진흥재단 등과 같은 외부에서 심사위원후보 10명 정도를 선정하여 총장에게 추천한다"며 "총장은 인

사규정상 외부심사위원 후보자 가운데 선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역교과 교수들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이번 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학교에서 여러 명의 교수를 학교에 추천해 학교에서 비공개로 선정한다"며 "본교는 학과와 상의 없이 심사위원을 선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외부심사위원제도와 그 신원의 비공개는 당연한 조치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이번 임용사건으로 학교측과 역교과 교수측은 불신이 깊어져 상태여서 앞으로 많은 갈등이 예상된다. 학교측은 '심사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그리고 역교과측은 '외부논문심사위원 선정제도의 변경'을 제기하는 등 아직도 갈등의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있다. 한편 이번 주부터 강의를 시작할 개별 교수들이나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를 지켜본 역교과 학생들이 서로에게 쌓인 불신의 벽을 과연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

황추상 기자

hjs0228@dongguk.edu

도서관 소식

서영석 교수 희귀고서 기증

지난 17일 경주캠퍼스 서영석(국어국문학)교수가 서울캠퍼 도서관에 문학집성 목판본 1집(13권 13책)을 기증했다.

문학집성은 국어 문헌 관련 사적으로 현재 규장각 및 각 대학 도서관에도 소장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고서이며, 서 교수는 자신의

정년퇴임을 기념하기 위해 도서관 측에 소장본을 기증했다.

이와 관련해 서영석 교수는 "이 책을 통해 본교 국어국문학 연구 중 음성학 방면 연구를 하고 있는 학생과 후배 교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독서 퀴즈왕 선발대회 9월 15일 개최

제1회 동국 독서 퀴즈왕 선발대회가 다음달 15일 2시에 팔정도 북상 앞에서 개최된다.

중앙도서관(관장=최인숙·철학)과 학생처에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도서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열리는 것으로 접수는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도서관 홈페이지 및 중앙도서관 인문과학실에서 실시한다.

최종 참가자는 50명으로 신청자가 50명을 넘을 경우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중앙도서관 대출 회수에 한해 다독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참가자 선정 및 공고는 9월 8일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시상 학생은 △대상=장학금 100만원(1명) △우수상=70만원(1명) △장려상=30만원(1명)이 각각 선발 된다.

DB 서버 교체 ... 도서관내 속도 향상

지난 6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작업의 일환으로 중앙도서관 DB서버가 교체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서관 전용 검색대 내 컴퓨터와 대출, 반납실 내 컴퓨터의 작동이 느려 학생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이를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됐다.

까지 서버 전체가 교체돼 도서관 내 멀티미디어실에 설치된 일반 컴퓨터들의 인터넷 속도도 현재보다 빨라질 예정이다. 이번 웹서버의 교체로 도서관에서는 다음 학기 내로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해 학생들이 외부에서도 쉽게 홈페이지를 통해 도서관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휴학생 특별열람증 발급

이번 학기부터 휴학생에게 특별 열람증이 발급된다. 이로써 휴학생도 도서대출이 가능해 학습하는데 불편함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특별 열람증은 한 학기 휴학하는 단기 휴학생을 대상으로 발급하며 2학기 이상의 장기 휴학생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중앙도서관 2층 도서 대출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도서대출 기간은 2주, 대출 권수는 5권으로 일반 재학생과 동일하다.

자료실 이용시간 오후 9시까지

중앙도서관 자료실 이용시간이 오늘(23일)부터 오후 9시까지로 연장된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토요일은 오전 9시 30분부

터 오후 5시까지이다. 한편, 열람실은 오전 6시부터 24시간 개방될 예정이다. 이용시간 연장 기간은 오늘 12월 11일까지다.

〈표〉 중앙도서관 자료실 변경 이용시간

층별	자료실	월 ~ 금요일	토요일
1층	멀티미디어실	09:00 ~ 21:00	09:30 ~ 17:00
	불교학자료실		
2층	과제 도서실	21:00 ~ 17:00	
	참고 도서실		
3층	정기간행물실		

교비 환수 계획 수립

2006년까지 341억원 단계적 환수

재단 소유 자산 · 포항 한방병원 신축부지 등 매각 통해 확보

우리학교가 오는 2006년도까지 단계적으로 341억 5900만원을 교비로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불교병원건립에 쓰인 교비를 거둬들이라는 교육부의 명령에 따른 것이며 회계연도가 끝나는 다음해 2월까지 100억원을, 2006년도 12월까지 나머지 금액을 회수할 예정이다.

이 중 100억원은 재단이 소유한 일부 자산을 매각함으로써 마련하고, 나머지 241억원은 포항 한방병원 신축부지와 경주 용강동 한방병원 매각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애초 교육부가 제시한 환수금액은 418여 억원이었다. 그러나 학교측은 '의·한의대 부속 일산 불교병원'은 사립학교법에 어긋나지 않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비사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에 교육부는 '의·한의대 부속 일산 불교병원'이 의과대 학생들의 교육시설임을 인정해 76억 9천여만원을 감면토록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교육부의 교비유용에 대한 징계사항을 살펴보면 △전 총장 중징계 △현 총장 경고 △사학진흥기금 68억 4천만원 환한 처리이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교육부의 요구에 따라 전임 총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현 총장은 경고 조치키로 하고 사학진흥기금 68억 4천만원 환한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는 지난 13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뤄진 교비 환수 계획을 교육부에 통보했고 교육부는 이를 검토 중이다. 교육부의 하천석 사무관은 "관선이사제의 시행 여부 등 여타의 교비 환수 계획 검토 결과는 이번 주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학교측의 교비 환수 계획에 대

해 임수옥(화공4) 총학생회 비상대책위 집행부는 "교비 환수 금액이 처음에 책정됐던 것보다 삭감되었지만 학교측의 불법적인 교비 유용을 밝혀내 의미 있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환수 계획의 실천"이라고 말했다. 또한 학교가 교비를 유용한 금액만큼 앞으로 몇 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총동창회는 이번 교육부의 교비환수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외부 법인에 자문을 구한 상태다.

김지희 기자

gazababo@dongguk.edu

역사자료 정보화 국고지원금 획득

중앙도서관(관장=최인숙·철학)이 이번 해부터 5년간 정무로부터 역사자료 정보화 국고지원금을 지급받게 됐다.

대학 도서관내 소장된 역사 자료들을 전산화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지원에서 건국대, 연세대, 서울대 등 총 10개 대학이 선발된 가운데 우리학교는 이번 해에

총 11억의 지원금 중 가장 큰 금액인 2억 4천9백만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로써 중앙도서관에서는 우리학교에 소장된 교서의 내용을 목록 교정 작업을 거친 후 스캔을 해 내년부터 학생들이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교서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총장장학 제도 변경시행 안내

본교 총장 장학제도(학생회 간부 및 신문방송기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2003학년도 총장장학금 지급현황

총장장학 지급인원 및 금액(비율)				비고
교내장학 총수혜인원	총장장학 수혜인원	총인원 대비(%)	총금액 대비(%)	
6,088	945	15.52%	9.94%	

* 총장장학 수혜 선정기준: 17(15)학점, 2.0 이상

2. 총장 장학제도 변경내용

가. 학생회 기구

구분	지급대상	장학금액(변경후)	비고
총장(1)	총학생회장/부회장 총대의원회 회장	등록금100%	삭제
총장(2)	총장간부, 총여학생회장단, 총준위장, 교지편집위원장, 동아리연합회장단, 불교학생회장, 기숙사생활, 단과대학생회장, 학군단 명예위원장, 응원단장, 부단장	120만원	
	단과대 부학생회장	70만원	총장(3)
총장(3)	총대의원회 간부, 단과대 대의원장	-	삭제
총장(4)	동연분과장, 불교학생회 구도부장, 불교합창단장, 전공학생회장, 졸업준비위 간부	70만원	
총장(4)	총여학생회 간부, 교지편집위원장, 동연간부, 단과대대입행부, 학군단 명예위원장, 총대장, 응원단원	40만원	
총장(5)	학과대표	10만원	

나. 신문방송기자 장학금

장학명	지급대상	장학금액(변경후)	비고
신문방송A	정기자	등록금80%	
신문방송B(B-1)	정기자	등록금36%(30%)	
신문방송C(D)	정기자	등록금30%(40만원)	

* 학비보조금은 별도 지급(해당자에 한함)

3. 장학금 수혜 선정기준 상형 : 직전학기 17(15)학점, 3.00이상 취득시 지급 (단,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함)

4. 시행시기 : 2004-2학기부터. 단, 장학금 수혜 선정기준은 2005학년도부터 시행하며, 신문방송 기자 장학금 변경 제도는 년차별로 시행함

5. 신설장학 내용 : 총장장학 제도변경에 따른 조정장학금은 2004-2학기는 학업지도교수 추천장학 제도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2005학년도부터는 교육강화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변경 시행함(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공지)

6. 재학생 설문조사 결과 요약

가. 설문조사 기간: 2004.4.7(수) - 2004.4.30(금)

나. 조사방법: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후 시행

다. 설문조사 결과 요약

- 총장장학 수혜 선정기준: 설문결과 83.9%가 선정기준 상향의견을 제시
- 총장장학 개선여부: 전체응답자중 72.8%가 총장장학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응답을 하였고, 93.3%가 총장장학 지급비율을 조정하여 일반학생들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장학제도로 변경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동의하였음
- 기타 세부사항은 하단 참조

■ 총장장학제도 개선관련 설문조사 결과

no.	설문내용	응답 인원	구분	총합	
				인원	비율
1	2004-1학기수혜 대상여부	1307	미수혜	927	70.9%
		1307	수혜	378	28.9%
2	총장장학 지급기준 중 인지 여부	1307	알고 있었다	470	36.0%
		1307	전혀 몰랐다	835	63.9%
3	현재의 본교 총장장학 지급비를 적정 여부	1307	적정	357	27.3%
		1307	개선필요	948	72.5%
4	총장장학 조정후 일반 학생을 수혜대상으로 하는 장학제도 운영	1307	동의인함	1218	93.2%
		1307	동의인함	87	6.7%
5	동의한다면, 신설장학 형태는?	1266	성적우수	797	63.0%
		1266	복지장학	397	31.4%
6	총장장학 개선시 적정 지급비율은?	1307	기타	72	5.7%
		1307	6-7%	559	42.8%
7	총장장학 수혜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	1307	2-5%	619	47.4%
		1307	2.0이상	127	9.7%
7	총장장학 수혜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	1307	2.5이상	210	16.1%
		1307	3.0이상	343	26.2%
7	총장장학 수혜 선정기준에 대한 의견	1307	3.0이상	752	57.5%

학 생 처

학업지도교수 추천장학 신설

1. 신설취지

- 가. 학업지도교수의 학생지도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학업지도교수별로 1명씩 장학금 선발 (추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 나. 해당학과(전공)별 특성화(학과에서 필요한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다. 아울러,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일정금액을 보조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제한과 교육과정의 어려움을 해소)

2. 장학명칭 : 학업지도교수 추천 장학

3. 장학금 지급대상 : 학업지도 담당학생중 매학기별 우수장학 신청자중에서 해당 학과(전공) 발전에 기여한 학생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1명을 선정하여 추천

4. 장학금 수혜 자격기준 : 직전학기 취득학점 및 성적 17학점, 3.0이상인 학생

* 불교대, 경영대, 사회과학대 1.2,3학년, 경제학전공은 15학점 이상, 4학년(7학기) 재학생은 12학점 이상 취득해야 함

5. 추천방법(절차) 및 기한

가. 학업지도교수 : 학업지도 학생중 장학수혜 추천자 1명을 선정하여 대학장에게 추천

- 1) 해당학과(전공) 발전에 기여한 학생: 전공심화 정도, 전공관련 자격증 취득사항, 수상경력, 실기성적 및 기타 학과발전을 위한 노력 등의 항목을 평가하여 추천장학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학업지도교수가 소속 대학장에게 추천
- 2)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 부/모의 재산세 및 종로세 납부총액이 5만원 이하인 학생을 학업지도교수가 소속 대학장에게 추천

나. 대학장 : 학업지도교수 회의를 통하여 추천대상자 적격여부 심의후 별도의 추천양식에 의거 학생처에게 추천

다. 대학별 추천양식

학과(전공)	장학수혜 추천대상자		추천교수명 (학업지도교수)	추천사유 구분 - (1) 학과발전기여자 - (2) 가계곤란자
	학번	성명		
		직전학기 성적 (성적/취득학점)		(1) 또는 (2)를 기재

라. 2004-2학기 장학수혜 대상자 추천기한 : 추후 별도 공지

6. 장학금 지급금액 : 40만원(1인당)

7. 시행시기 : 2004학년도 제2학기에 한하며, 2005학년도부터는 교육강화(좋은수업 만들기)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변경 시행할 예정이다.

8. 기타 : 2004-1학기에 학생들의 학업지도를 담당할 교수에 한하여 추천권을 부여하며, 당해학기 휴직, 해외 파견, 연구원 교수는 제외함.

학 생 처



200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여러분은 불타정신 실천할 국가의 동량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정신 선도하길

존경하는 내의 귀빈 여러분!
영예의 학위를 받는 졸업생 여러분!
본인은 먼저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
그간 여러분들이 보여준 진지한 면학자
세와 뜨거운 탐구열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고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
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의귀빈, 학
부모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또한 그동안 졸업생 여러분들을
이처럼 훌륭한 지성과 인격을 갖춘 지
도자로 길러내 주신 홍기삼 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노고
에도 깊은 감사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정치적, 사회적으로
격동하는 대변혁의 시기에 정든 교정을
떠나서, 현실 사회로 발길을 내딛게 되
었습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사회는 이념적 측면
에선 이른바 보수와 혁신의 대립이 극
한적 상황을 연출하고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노·사의 갈등, 빈부의 심
화, 고용의 불안정 등 허다한 난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평화와
자유가 우리를 젊은 지성들의 변함없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는 인
종과 종교, 국가와 국가간의 이해 대립
으로 말미암아 끝없는 불화와 갈등, 전
쟁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외적으로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은 학업

며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가꾸고
실현하는 자유로운 참 사람의 길을 닦
아온 지성 중의 지성입니다.
지금 이시대에 국민 각자가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세계 속의 '한국'을
창조하려면 무엇보다도 화합하는 마음
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이러한 불타(佛陀)의
정신을 몸소 실천할 국가의 동량(棟樑)
이라고 본인은 믿습니다.

정든 교정을 떠나는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들은 동국대학교를 떠난 후에
도 늘 동국 가족이 된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교가 명실 공히 한국을 대표
하는 민족의 명문 사학이 될 수 있도록
돕고 밀어주시길 당부합니다.

또한 17만 '동국인' 선배들이 그간
이룩한 전통과 업적을 계승하고, 보다
높은 창조적인 삶을 통해 자아를 완성
함은 물론 나아가 나라와 민족, 인류문
화의 발전을 위해 크게 헌신하여 주실
것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거듭 오늘
의 뜻 깊은 졸업과 여러분의 학문적 성
취를 축하하며, 졸업생 여러분의 앞날에
부처님의 크신 자비 광명이 늘 함께 하
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김 현 해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자랑스런 동국의 졸업생 여러분!

오늘, 수년 동안 동학의 광장에서 용맹
정진 노력한 결과로 영예로운 학위를 받
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졸업생들의 오늘이 있기까지 꾸준한 지도
와 각별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교수님
들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입학 이후 오늘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철
저하게 뒷바라지 하였던 학부모님들과 가
족 여러분께도 축하와 함께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졸업생 여러분! 인류는 언제나 불확실
한 미래를 청년들의 꿈과 용기에 맡겨 왔
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인
류의 경험이 축적된 지식을 전수하고 밝
은 지혜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명을 부여받은 곳이 바로 대학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희망의 미래를 향해 눈부
시게 비상할 시점에 서있는 여러분이 이
룩한 학업의 결실은 더욱 영예롭고 소중
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펼쳐나갈 미
래의 모습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어떠한
경우에 처하더라도 스스로 당당한 주인이
되어 한줄기 빛으로 타오르길 바라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변화
를 체험하고 있지만, 미래의 전망은 아주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현대사
회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융합이 강조
되고 있으며,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갖지 않으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
다. 여러분들은 졸업 이후에도 자기발전
을 위한 노력을 끝없이 경주하고, 서로 같
고 다름에 대한 이해와 통찰을 통해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조화하고 협동하는 미덕
을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특
별한 정신적 가치를 건학이념으로 둔 본
교의 졸업생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
운 시대정신을 선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민족분단의 극복과 인류의 화합뿐
만 아니라 '자연에 이르기까지' 삼리만성
이 공존할 수 있는 평화와 생태학의 새
로운 시대정신을 요구합니다.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존재의 관계를 상호의

존적 공동체로서 인식하고, 중도(中道)와
원융(圓融)의 삶을 추구할 때 풍요로운
정신과 행복한 삶이 보장될 것입니다.

동국대학교는 이제 건학 100주년을 앞
두고 미래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가족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탕
으로 재단의 합리적인 노력과 지원을 약
속받아서, 미래의 비전이 확실하고 교육
에 충실한 명문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공간을 확장
하여 부족한 교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학의 기본적인 교육시스템
혁신과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완성하여 곧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한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동국대학교의 특
성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특성화정책을
구체화하여 명문동국의 기틀을 세우고 백
년의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백년의 역사가 남긴 튼튼한 뿌리와 풍부
한 자양을 바탕으로 졸업생들에게 명예로
고 자랑스런 모교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열정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후배들에게 다른 어느 대학보다 강도
높고 내실있는 교육을 시킬 것입니다. 앞
으로 여러분의 가슴에 새로이 싹트는 동국
사랑의 마음으로 17만 동문선배들과 함께
모교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
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홍 기 삼

동국대학교 총장

박사학위수여자 (54명)

철학 (3명)

- ▲김정천=불교 수행의 두타행(頭陀行) 연구
- ▲류효현=길장(吉藏)의 팔불중도관(八不中道觀 研究) 연구 -중관론소(中觀論疏)를 중심으로
- ▲김말환=선수행에 의한 심리상담법 연구

법학 (1명)

- ▲임원선=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 조처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정치학 (1명)

- ▲천상덕=유럽연합(EU)의 정치적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문학 (2명)

- ▲성동민=남북한 전시소설 연구 -스토리 유형을 중심으로
- ▲최필선=헤밍웨이 여성 인물의 재평가 -양성성을 중심으로

행정학 (2명)

- ▲조용희=민관 공동출자 사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이동근=청소년 상담 활성화화를 위한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교육학 (2명)

- ▲황영남=한국 교사평가제의 진단 및 발전 모형 구안
- ▲이지중=교육에 있어서 언어와 삶의 근원적 성격 -'유식학'의 관점을 중심으로

경제학 (1명)

- ▲정우수=국내 통화외금지수의 산출과 이동통신 통화수요의 탄력성 추정에 관한 연구

경영학 (2명)

- ▲김성준
- ▲박미주

- ▲조여연=은행합병의 국제 비교 및 우리나라 은행산업의 효율적 합병방향에 관한 연구
- ▲한영수=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마케팅전략에 관한 실증분석 -광동성, 산둥성, 상해를 중심으로

경찰학 (4명)

- ▲김은주=청소년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수치심에 관한 연구
- ▲김상호=경찰조직문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조현빈=청소년의 법의식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송병호=경찰서장의 리더십이 경찰관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학 (3명)

- ▲박근화=관측자료 연구에서 비용효과의 통계적 추론
- ▲김경희=직업무용수의 무용활동에 따른 심리적 요인과 상해와의 관계
- ▲김진미=팬스스포츠 참가자 대도시 노인의 체력, 신체적 수행능력 및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공학 (14명)

- ▲우석훈=다해상도 2-D 및 3-D DCT 기반 영상 및 비디오의 순차 전송과 장면 전환 검출
- ▲임원준=유전자 알고리즘을 이용한 광대역 소형 마이크로스트립 안테나의 최적화 연구
- ▲임준규=보안시스템 구현에 필요한 최적 LVQ 설계의 열골영상인식과 1차 투영 방식의 움직임 추적
- ▲김형일=협동적 필터링을 위한 데이터 블러링 기법
- ▲홍성욱=분산 OCSP에서 인증서 상태 검증을 위한 효율적인 기법
- ▲김경자=에드록 네트워크에서의 ZRP를 기반으로 하는 경로 탐색 기법
- ▲김상모=U자형 강판을 이용한 합성보의 구조적 성능에 관한 연구
- ▲김상일=국내 대형병원 프로젝트의 시공성(施工性) 증대를 위한 Partnering Model
- ▲이도형=강구조(鋼構造) 약축(弱軸) 기동-보 접합부 상세(詳細)의 개발과 구조 특성에 관한 연구
- ▲손일일=나노튜브와 Polypyrrole고효율 기체 복합막 제조에 관한 연구
- ▲김인범=UV 경화에 의한 반도체 다이싱용 접착제의 접착특성 변화 연구
- ▲강준영=의약품 동결건조기의 자동제어
- ▲윤장호=Procin Kidney의 Angiotensin I Converting Enzyme cDNA 클로닝

- ▲유영준=공급사슬관리 환경하의 실시간 자원분배계획모형 개발

한의학 (13명)

- ▲최희철=배합비율에 따른 죄금환의 간보호 효과
- ▲남원기=이정환의 Peroxynitrite 제거능에 관한 연구
- ▲김윤태=간암 세포주에서의 희림의 Apoptosis 유도과 기전
- ▲이영효=하수오(何首烏)가 고지혈증 흰쥐의 뇌허혈(腦虛血) 손상에 미치는 영향
- ▲장미경=수삼추출물 투여 및 항기압입이 항우울작용에 미치는 영향
- ▲박종흠=천왕보심단(天王補心丹)의 항우울 효과 및 monoamine 대사에 미치는 영향
- ▲한윤정=고지방식이(高脂肪食餌)로 유발된 비만 흰쥐에 대한 홍삼 조사포닌의 효과
- ▲최재영=태소음양인(太少陰陽人)의 소증(素證)에 관한 임상적 연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 ▲이기억=Immunomodulatory activities of ethanolic extract of Drynariae Rhizoma
- ▲이승렬=희림에 의한 iNOS발현과 PKC α 억제제를 통한 혈관평활근 세포의 Apoptosis 유도
- ▲고경덕=흰쥐 대뇌세포의 저산소증 모델에서 남성(南星)이 활성산소, 세포사 및 유전자 표현에 미치는 영향
- ▲지명철=수풍환(搜風丸) 및 수풍환가소목(搜風丸加蘇木)이 Carrageenan유발 흰쥐 관절염의 소염, 진통 및 해열작용에 미치는 영향
- ▲하기태=Overexpression of Gd3 synthase induces apoptosis of EC304 cells through down-regulation of Bcl-2

의학 (6명)

- ▲김한규=분선자 ethyl acetate 분획의 암 예방 활성에 관한 연구
- ▲이윤지=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고시 문항의 출제 빈도에 대한 범주 개발
- ▲김영일=일반인구와 뇌졸중환자의 ApoE, PRNP 및 PRND 유전자 다형성에 관한 연구
- ▲이호현=만성 복막투석 동물모델에서 투석액 종류에 따른 복막 내 제1형 수분통로 발현의 변화
- ▲강희주=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activated gene(NAG-1) 발현과 위암 세포에서 세포자멸사간의 연관성
- ▲서동권=흰쥐에서 광물성 섬유유 이물질에 대한 조직반응과 Matrix metalloproteinases 및 Tissue inhibitor of metalloproteinase의 발현

석사학위수여자 (524명)

일반대학원 (168명)

- 문 학 김영석 이흥구 박보람 김진현 장은진 서수정 이해란 박재은 서왕모 오진호 이원숙 장재진 김효립 김삼기 유경덕 이윤선 신일권 장현아 표영관 권오수 김은화 차인철 박선희 조선경 김태근 광경순 김경호 김명운 고영일 이기립 노수연 박순영 김선경
- 교육학 전진상
- 법 학 홍성기 백순남 배인연 정원준
- 전상현
- 행정학 조수관
- 정치학 안선주 조용준 장동기
- 경제학 장대근
- 경영학 김창준 신혜영 김대경 박재현 이연경 손간민 박은진 조정우 정용일 손익현
- 경찰학 김지연 송해진 오세연 주재진 송은성
- 사회학 조춘호
- 지리학 심인선
- 이 학 김현준 이동현 윤관식 고대호 김현정 황상훈 김석일 김상규 김은진
- 김성준 박미주 김지영 조영석
- 가정학 김태인
- 농 학 김경희 이상규
- 공 학 이명진 이숙화 한효종 이석훈 권인수 이창준 박진성 이항신 김민건 김미경 김성주 문형석 고경섭 김수성 김대필 김기현 박순일 이상문 김나영 노길태 김영택 박희정 김만식 안선경 안찬식 한정화 홍상민 김완기 신용철 박성범 이동현 엄영경 최진욱 손영중 한봉수 강희승 현근일 김영진 홍성길
- 체육학 강별남
- 한의학 권 울 서영민 김종봉 이 인 원유문 한운승 박선주 이영태 박운성 류정만 박재훈 전현숙 김오곤 최민선 김경희 김용현 김문곤 김상구 장중근 김석돈 김경산 김창호 권오덕 박세영 홍흥표 포 동 우희주 윤성순 박광순 유우자 이현주 김현순 윤희정 김인화 손인숙 전민정 김미영 최영숙 정덕균 김광준 이강진 장용순 오윤희 임혜경 윤지영 윤완중 우병환 이기혁 위금환 이희남 이재우 김영일 박종국

영상정보통신대학원 (5명)

- 공 학 전유석 이형숙 영화영상제작 유수연 멀티미디어디자인 조성미 문희영

불교대학원 (25명)

- 문 학 류재중 이운영 이정섭 이운섭 박태권 서만득 김영주 김한기 박명근 사회복지학 장 원 박종길 여우숙 유영학 이인순 김동식 고정숙 김계자 이영순 이한별 이옥화 서석희 김기훈 김병주 강창범 이영숙

행정대학원 (53명)

- 행정학 김대돈 이강수 박경석 김유천 김광수 김용중 장수홍 류지영 박우선 김성훈 송중민 송택환 이금주 서상관 신경철 김용현 김문곤 김상구 장중근 김석돈 김경산 김창호 권오덕 박세영 홍흥표 포 동 우희주 윤성순 박광순 유우자 이현주 김현순 윤희정 김인화 손인숙 전민정 김미영 최영숙 정덕균 김광준 이강진 장용순 오윤희 임혜경 윤지영 윤완중 우병환 이기혁 위금환 이희남 이재우 김영일 박종국

경영대학원 (54명)

- 경영학 신동운 고재선 김현진 최길락 오현일 황경호 김종찬 김병남 김명섭 최기석 김일수 류순민 오은종 강현석 은은아 이종대 우한철 최성호 류인환 이수정 이아근 김정은 정희웅 신현석 이상원 서남미 류호욱 이재현 송효영 강장원 한지환 조 웅 최영락 임형욱 윤삼훈 박 수 손은석 정용수 배준달 정현성 이현용 박중용 고희경 공민달 김기성 이환주 장재오 박용환 정근경 나길수 조재후 김현수 조영신 오봉환

교육대학원 (105명)

- 교육학 김문자 최기은 김학희 손재순 권현진 박부숙 원유덕 류재성 송병태 이재화 박미정 신금자 김은희 김상순 장승원 김복순 정희정 김진이 한두경 김양희 박지영 김세훈 김유경 최운영 배경진 문명관 조현주 김대식 민영순 이현주 임선희 이광호 신신화 김유형 이수정 조은희 김미진 김희숙 박덕녕 박영수 황선모 이준복 손현희 권지영 문홍대 신현영 정지영 조아라 김광남 윤인경 김수미 박미영 황인숙 이은경 이재동 이정근 박신영 조은정 권진수 이기순 지용대 오주영 김구환 변리라

- 장예원 조은정 최정출 신주영 강희선 정순미 김한승 김진영 신재용 강대승 정영숙 허병철 손선미 손희남 김미령 박운정 김민경 김성만 박은화 최승희 강신조 김효식 황병철 황은경 김미영 강혁 임태정 채환동 안미나 정지영 마현숙 심미정 서지현 김경희 김석환 김명옥

언론정보대학원 (12명)

- 경영학 김대진 이현주
- 언론학 안희구 강현직 박정철 전용우 고영규 왕경숙 김형수 최광주 이철화 이은경

산업대학원 (22명)

- 공 학 송춘의 송리라 김현철 박동환 이한복 조석규 이도호 정진채 황인양 손문영 장완수 김재광 윤동호 최지배 차승원 이문규 김기진 박정신 최성복 오정원 정원호 광성원

문화예술대학원 (23명)

- 문 학 남현애 이수민 심민정 장선희 정영희 김미경 박신영 김흥선 고해신 정숙향 박 선 권현수 김용임 정성숙

- 음악학 이미선 한지영
- 예술학 이미정 김효정 김은희 정정환
- 예술경영학 백승이 조운경 이교과

국제정보대학원 (18명)

- 공 학 박길양 원종진 임정우 장운숙 김대영 김용수 김경근 서영규 김상현 허영희 박경수 권한용 서운미 이상영 문덕력 신준희 임형도 변역학 김미정

불교문화대학원 (9명)

- 문 학 김상두 서인성 이상병 도본순 이용성 황영대 송세현 미술학 조해종 전원임

사회과학대학원 (30명)

- 행정학 조효상 박상무 신태용 노성표 경영학 이정일 김진률
- 정치학 오관수
- 법 학 정재근
- 사회복지학 정득보 최종선 안승관 권미영 조영호 이주련 권춘희 권순관 김연화 이수경 이병국 문병원 황명자 서보열 박태련 김필자 김태숙 최정애 유경선 윤희일 이선희 조금란

보리소

도롱뇽과 불교생태학

작금, 불교계와 맞물린 세간의 화두는 '도롱뇽'과 '지울스님'이다. 도롱뇽은 이 시대 '환경'을 상징한 지 오래고, 지울스님은 '만 생명의 소중한 가치'는 인간군상들의 여하한 명분을 앞세운 욕심과 결코 바꿀 수 없다'는 명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개발논리로 점철돼 온 저간의 한국사회의 허구성을 여실히 고발하고 있는 지울스님은 20일 현재 청와대 앞에서 단식 52일째를 보내고 있다. 못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의 놀라운 저력은 이미 영육(靈肉)의 차별을 초월한 듯싶다.

물론 안락의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도롱뇽으로 대변되는 생태환경을 살리기 위한 노력에 목숨을 담보한 지울스님의 투쟁은 역으로 자기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간파한 것이 될 수 있으며, 후손들에게 선조들의 지혜를 물려주기 위한 수행자의 목숨 건 항거를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청와대를 위시한 정부관계자들의 책임방기는 과연 저들이 국민의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의구심을 주기에 충분하다.

이 문제를 불교종단대학인 동국대의 시각에서 살펴보자. 홍기삼 총장은 취임직후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연구작업의 하나로 '불교생태학'의 정립을 내세운 바 있다. 동국대를 '불교의 생태관을 중심으로 모든 학문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연구되는 불교생태학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은 불교가 생태계 위기에 답하는 유력한 철학사상이자 유일한 실천적 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북한산' '새만금' '천성산' '금정산' 등을 축으로 촉발된 '개발논리와 생태환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불교생태학과 관련한 학내인사 누구도 생태현장을 답사하며 환경평가를 통한 이론과 대안을 제시했다는 소식을 들은 바 없다. 동국대를 불교생태학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실현시키기 위한 해답은 결코 경전 속에 머물러 있지 않다. 늦지 않았다. 그들의 분발과 참여를 촉구한다.

하 춘 생
주건불교신문 편집부장

소나기

2004년 2학기, 내 인생 ○○에 건다.



△무조건 학점에 건다. 지난 학기까지 학점이 너무 형편 없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임용고시 합격에 건다.
△앞으로 남은 졸업공원에 건다.
△잘 생긴 남자 친구 만들기

에 건다.
△토익 900점 맞기에 건다.
△하늘에 별따기 보다 힘들다는 취업에 건다.
△우리학교 발전에 건다.
△창년실업 해결방안 모색에 건다.
△공무원 시험에 건다.
△독서에 건다. 이번 학기부터 일주일에 한권씩 꼭 읽을 것이다.
△기술고시에 건다. 꼭 합격해야지..
△10억 모으기에 건다. 짧은 시절에 미리, 미리 많이 모아 두어야겠다.
△출판대는 뱀살에 건다. 들고 다니기 너무 곤란하다.
△한 학기동안 짝사랑해 온 그녀에게 건다.
△수업 '전출'에 건다.

권위시대가 끝나고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권리에 대한 의식은 급속하게 확대되었고,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하였거나 사회적 이슈가 되지 못하고 수면 아래 잠복하였던 권리에 대한 주장이 사회 각 분야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논란이나 직업공무원의 정치적 권리에 대한 주장, 그리고 최근에 발생하였던 정치적·사회적 문제로 인한 노동분규 등 수시로 터져 나오는 권리에 대한 주장은 한편에서는 사회적 공감을 얻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논란의 여지를 남기기도 한다.

물론 흠이 없는 권리보호를 지향하는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이런 현상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권리 위에 잡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어쩌면 권리는 주장하는 자만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자신의 권리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경향이 도처에서 나타나면서, 권리가 무엇인지 새삼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연대사회에서의 권리

권리는 특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으로부터 정당화된 힘이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 일방적인 힘만 부여된 것은 아니다. 모든 권리는 그에 상응하는 의무가 수반된다. 자



논단
김 상겸
법대 법학과 교수

권리 뒤에 숨어있는 의무

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가 정당해야 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만 한다.

우리가 이루고 있는 사회공동체에서는 일방적인 자신의 권리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에게는 이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근대 시민사회가 내건 슬로건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연대였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혼자만이 아니라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서, 다른 사람과 공존하면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국가공동체 위한 책임·의무

권리에 수반하는 의무와 책임의 문제는 우리 법질서에도 분명하게 자리잡고 있다. 우리 헌법은 단지 국민의 권리만 보장하고 있지 않다.

권리와 함께 의무를 규정하여 한 국가에 속하는 국민에게는 국가에 대하여 보장과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국가공동체를 위하여 해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은 선언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의 몇몇 사건들을 본다

신데렐라 콤플렉스서 벗어나 내 능력을 키우자

텔레비전 드라마는 그 시대의 사회를 나름대로 해석하여 허구적으로 재구성한 사회문화적 구성물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파리의 연인'이 많은 인기를 끌었던 원인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데렐라 콤플렉스 때문이었다. 신데렐라 콤플렉스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서 자립할 자신이 없는 여성이 자신의 인생을 일변시켜줄 왕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심리다. 즉 남자에게 보호되어 살아가고 싶어하는 여성의 의존 심리를 말한다.

그 동안 여성들은 잠재의식적으로 남성이 만들어 놓은 오래된 억압의 골레를 깨닫지 못한채 모순적인 힘만 부여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왔다. 억울한 일이다. 나를 돌보이게 해줄 돈 많은 남

자가 없으면 나의 존재의 이유조차 잃어버린다는 것은, 드라마의 내용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남에게 무조건적으로 기대려는 심리가 옳지 못하다는 것이지 왕자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다.

내 능력의 키를 한 뼘만 더 키우자. 그것이 내 존재의 이유이고 화려하게 자기를 실현하는 길이다. 내 키가 축축 자라면 그토록 바라던 왕자님이 제발로 찾아올지도 모를 일이다.

적어도 왕자님 앞에 구두를 벗어놓는 초라한 태도를 거부하고 싶다면, 언제나 환상 속에서 행복하고 싶지 않다면 조금만 더.

정미진(문과대 국문2)

세상을 한가지 잣대로만 평가하지 말자

최근 본 영화는 마이클 무어의 다큐멘터리 영화 '화씨 911'이었다. 평소 명분 없는 전쟁에 분노를 느끼고 있던 차에 이 영화는 내 주관에 확고한 신뢰를 주는 듯 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내가 알고 내가 듣고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은 과연 얼마만큼이나 사실일까 하는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화씨 911이 사실성이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시대가 변하면 관점이 변하고 그러면 사건을 다루는 태도가 달라진다.

사건을 겪은 당사자라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다. 보도자가 사건 경험자의 인터뷰를 보도하더라도 어느 한쪽의 의견만 보도한다면 마치 그 의견이 모두의 의견인 양 받아들여지고 마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 평가할 때에는 사실을 기초로 하게 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눈에 보이는 일련의 사건들만 본다면 외연적인 현상에 치우쳐 문제의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세상을 바로 보는 데에 있어서 한 가지의 시선으로만 한 가지의 잣대로만 판단하는 실수를 이 땅의 나와 모든 대학생들이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실을 보도하려는 언론들의 노력과 개혁이 필요하고, 이에 그 언론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또한 변해야 한다 본다.

김성호(사과대 사회3)

면 우리가 왜 그런 사건으로 인하여 혼란을 겪게 되는지 자명해진다.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결정이 양심적이어야 하고 법질서 내에서 인정되고 사회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정치적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직업공무원으로서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무가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의 노동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노동문제에 국한되어야 설득력을 갖게 된다.

강의실도 사회의 연장선

법은 상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상식을 이탈한 주장은 법에서 수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더 이상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권리 뒤에 숨어있는 자신의 의무와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짊어져야 할 책임에 대하여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의 상관관계는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강의에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학습권에는 강의시간에 지켜야만 하는 질서, 즉 다른 학생의 학습권도 존중해야 한다는 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자신의 권리 뒤에 숨어 있는 의무를 인식하고 실천할 때 이것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유지시키는 힘이 된다.

대승불교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수그러들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인도철학회와 인도철학과에서는 공동으로 일본 하나조노(花園) 대학의 사사키 시즈카 교수를 모시고, '대승불교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 유의해야 할 제 문제'란 주제로 초청 강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사사키 시즈카 교수는 율장 연구를 중심으로 인도불교 교단사에 관한 탁월한 논문과 저서를 발표하고 있는 학자입니다. 특히 승단분열, 즉 파승(破僧)에 관한 일련의 논문들은, 불교승단의 시대적 변화를 생각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연구성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연구성과에 힘입어 율장 및 부파의 논서 등을 자료로 대승불교의 기원에 관한 흥미로운 견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기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아직 명확한 실이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대중부 기원설'과 '재가불자 기원설'이 대승불교의 기원에 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설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시각에서 인도불교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최근 동서양의 학계에서는 대승불교의 기원에 관한 새로운 연구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강은 이 문제에 대한 세계 학계의 이슈를 선도하는 연구자 중 한 사람인 사사키 시즈카 교수를 초빙하여, 대승불교의 기원에 관한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조망함과 더불어, 이에 관한 그의 독특한 시각을 접해 볼 수 있는 귀중한 학술 논의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04년 8월 30일 (월) 오후 2시
- ▶ 장 소 : 동국대학교 다량관 세미나실

인도철학회 회장 김 선 근
인도철학과 주임교수 김 호 성 합장

2004학년도 2학기 특별시험

- 1. 시험일 : 2004. 8. 28(토)
- 2. 응시자격 : 2004학년도 2학기 1학년 재학생
- 3. 시험과목

학수번호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시험 일시	비고
RGC011	교필	컴퓨터활용과실습2	1	09:00 ~ 09:50	
RGC010	교필	실용영어2	1	10:00 ~ 10:50	
RGC008	교필	영어회화2	1	11:00 ~	

- 4. 전 형 료 : 과목당 75,000원
- 5. 원서 접수처 : 본관2층 교양교육운영실 (☎ 02-2260-3886)
- 6. 원서 접수일시 : 2004. 8. 23(월) ~ 8. 25(수), 09:00 ~ 17:00 [총 3일간]
- 7. 전형방법

- 가. 컴퓨터활용과 실습 2 : 제시된 문제의 답안을 디스켓에 저장한 후 이의 내용 평가 (엑셀, 엑세스, 파워포인트 등의 실습테스트)
- 나. 실용영어 2 : TOEIC 형태의 시험 실시 후 평가 (Listening Comprehension, Reading Comprehension)
- 다. 영어회화 2 : 외국인 교수와의 Interview 후 5가지 기준으로 평가 (발음, accent, intonation, 문장구조, 어휘의 풍부성)

- 8. 합격자 발표 : 2004. 9. 2(목) 학교 홈페이지
- 9. 성적등급 표시 : 합격한 과목에 한하여 A+, A0를 부여함.
- 10. 유의사항
가. 특별시험에 합격하여 취득한 성적은 포기할 수 없으며, 정규학기의 수강 신청을 불허함.
나. 고사일은 2004. 8. 26(목) 홈페이지 공고
다. 특별시험원서(홈페이지참조) 작성시 필히 사진부착

교 무 처

2004-가을학기 사회봉사 단원모집(학점신청)

- 1. 신청 자격 : 재학생
- 2. 신청 기간 : 2004. 8. 30(월) 09:00 ~ 9. 1(수) 17:00
- 3. 동국 참사랑봉사단 예비교육(이론 및 현장체험학습)

가. 일시 : 2004. 9. 4(토) 08:20 ~ 17:00
나. 장소 : ▶ 특강 - 본교 중앙당 08:20까지 시간당수
▶ 현장 체험 학습 - 한사랑 마을·향림원(경기도 광주 소재)
(※ 현장 체험 학습은 예비교육 대상자 전원 학교 버스로 이동)
※ 단, 예비교육은 최소 봉사 활동 신청시 이수해야 학점인정이 가능하며, 재학기간 중 1회만 이수하면 됨.

- 다. 준비물 : 중식 및 간편한 복장 착용
- 4. 봉사활동 기간 : 2004. 9. 13(월) ~ 2004. 11. 27(토)
- 5. 봉사활동 방법 : 활동내용 및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봉사활동 안내 자료 : 8월 30일부터 인터넷 게시 및 각 단과대학 교과과, 동국참사랑봉사단에 비치.

- 6. 봉사활동 대상 기관 : 갈음종합사회복지관 외 180여 개 기관
- 7. 사회봉사활동 학점 신청 및 성적처리 방법
가. 학점신청 방법 : 재학생서비스 > 수강신청 > 사회봉사 학점신청
8월 30일(월) 10:00 ~ 9월 1일(수) 17:00 (※ 봉사활동 프로그램은 선착순 마감)
나. 평가방법 : Pass 또는 Fail
다. 성적평가
(1) 학점 인정 : 불 학기 기간 중 33시간 이상 활동 시 (교과목: 사회봉사, 이수구분: 자유선택, 1학점 Pass)인정
(2) 학점인정시기 : ▶ 가을학기 활동자(2학기 기말고사 성적에 학점 반영)
(3) 전체 졸업이수 학점에는 포함하나 평균성적 산출시에는 포함하지 않음.
(4) Fail의 경우 학적부 및 학업성적표에 기록하지 않음.
※ 사회봉사 학점은 수강신청 제한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이수 학점으로는 재학기간 중 2학기까지 인정함.

- 특 전 : 사회봉사 인증서 발급/성적우수 장학생 선발시 시간인정/우수봉사자 포상 및 장학금 지급/총장수여
- 최근 상명수의 기업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의 경험을 중요시하여 채용 과정에서 봉사활동 여부를 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봉사단 홈페이지 : 학교홈페이지/대학생활/동국참사랑봉사단

동국참사랑봉사단

2004학년도 2학기 2차 재입학·휴학 접수 안내

- 1. 재입학
가. 접수일자 : 2004. 8. 16(월) ~ 8. 18(수)
나. 등록일자 : 2004. 8. 23(월) ~ 8. 25(수) 미등록시 재입학 취소됨.
다. 재입학 대상자 : 퇴학 및 학칙 제53조의 사유로 제적된 자로서 2004년 2학기 재입학 희망자.
단, 학칙 제53조 12호의 학사징계 제적자는 제적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후 가능.
라. 구비서류 : 재입학원서 1부, 재적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1부.
마. 유의사항 : 재입학의 경우 소속대학이나 학과 및 전공에 전역성이 없을 경우 대학기 재입학 불가
- 2. 일반 휴학
가. 접수일자 : 2004. 8. 23(월) ~ 8. 25(수)
나. 휴학 대상자 : 가정형편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수업일수의 2/3이상 출석할 수 없는 학생 또는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
다. 신청서류
(1) 일반휴학신청서 : 보호자가 연서한 일반휴학원, 휴학연장원(휴학연장서) 1부.
(2) 휴학연장서 : 휴학연장서 휴학연장원 1부. (학교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라. 유의사항 : 일반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원칙으로 하며, 재학기간 중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단, 질병으로 인한 휴학은 1년 추가 연장가능), 일반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 또는 휴학연장원을 제출하지 않는 자는 휴학기간 만료 제정됨.
- 3. 접수장소 : 소속단과대학 교과과.

교 무 처

제5기 리모델링 개발사업 최고전문가과정 모집

- 1. 교육일시 : 2004. 9. 15(수) - 12. 8(수) *2주, 매주 월, 수요일 오후 7 ~ 10시
- 2. 모집대상 : 건설, 설계, 인테리어, 가구, 공인중개사, 부동산관리자, 공무원, 금융관련업체 임직원, 빌딩소유자 및 관리자, 등
- 3. 원서교부 및 접수 : 2004. 8. 9(월) - 8. 27(금)
- 4. 주최 : 산업대학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리모델링협회
- 5. 문의 및 연락처 : 2260-3603 (소정양식 http://www.brpp.com)

달하나 천강에



박인성 불교대 불교학과 교수

아름다운 산천, 아름다운 민족, 아름다운 절

땅이 있기에 민족들은 저마다 한껏 뽐냅니다.

아름다운 땅 한반도! 어디를 가나 산들이 있고 이 산들 속에 마을이 있고 마을 속에 내가 흐릅니다. 나는 늘 이 마을 속에 집 한 채를 짓는 꿈을 꾸며 삽니다. 오늘도 나는 집을 짓습니다. 담을 두르지 않겠습니다. 산과 들과 내가 뛰고 마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담을 두르더라도 낮게 두르겠습니다.

이 산과 들과 내를 우리 집 마당 안으로 끌어들이 수 있도록 말합니다. 집 마당을 텅 비워두겠습니다. 마당에 빗물이 골고루 떨어져 연꽃이 피어 있는 못으로 곱게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말합니다. 이제 우리 집으로 바람이 살짝 넘어들어오고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이 우리 집을 슬쩍 넘겨다봅니다. 그럴수록 우리 집의 마당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누리는 산과 들과 내의 넓은 마당 속에 있게 됩니다. 뒷마루 있는 집, 한옥을 짓겠습니다. 방 안에서 창문을 열고 마당을 바라보며 산을 느끼고 들을 느끼고 내를 느끼듯, 마당을 거닐다가 잠깐 뒷마루에 걸터앉아 지는 햇빛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절을 다닙니다. 그리운 나의 한옥을 찾아, 잃어버린 나의 한옥을 찾아 절을 다닙니다. 절에 가면 풀이 있고 마당이 있습니다. 저 멀리 앞으로 산들을 열어둔 채 뒤로 나무로 뒤덮인 산들에 둘러싸여 대웅전이라는 멋진 한옥이 있습니다. 지붕을 올려다봅니다. 맞배지붕, 팔작지붕, 마루, 추녀마루, 기둥을 쳐다봅니다. 배흘림기둥, 민흘림기둥, 단청을 살펴봅니다. 주의초, 머리초, 금문, 육중하게 내려앉은 지붕을 느껴 보고 장중하게 지붕을 떠받치는 기둥을 느껴 봅니다. 짜이고 쉬이는 혼돈과 쉬이고 짜이는 질서의 단청을 따라가며 그려 봅니다. 정말 아름다운 누리와 색깔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이 아름다운 누리와 색깔을 그려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마당에 있었으며 아직도 이 땅에 있습니다. 저 지붕과 기둥들을 짚을 수 있는 사람들

이 땅에 있었으며 아직도 이 땅에 있습니다. 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있는 장인들의 숨결을 여러분도 느껴 보십시오.

어둠속 고요한 속에서 절의 종소리를 들어 봅니다. 그 한 차례의 종소리보다 아름다운 소리가 있을까요? 서서히 잠겨 퍼지면서 모든 것을 멎게 하는 힘의 종소리. 바람이 멎고 구름이 멎고 새소리가 멎고 지는 해의 붉음이 멎습니다. 모든 것이 멎은 정적 속에서 홀로 육중하고 장중하게 움직이는 종소리. 여러분도 이 종소리를 느껴 보십시오.

나는 단집 안에서 고요히 선정에 드신 부처님께 절을 올립니다. 이 절이 천년 묵은 목조건물이듯이 내가 부처님께 드리는 절 또한 천년묵은 절입니다. 천년의 삼매 속에 천년의 사람들이 해오던 절. 나는 절을 하며 부처님의 삼매에 묻히고 절에 묻히고 한반도의 산천에 묻힙니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한반도의 산천에 묻혀 보십시오.

인도에 갔을 때였습니다. 인도의 땅 위에 한반도의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분명 인도의 땅에서 바라보는 하늘이었던 한반도의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인도의 땅이 그만큼 한반도의 땅과 닮았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나를 끌어당기고 있었지만 낯설기만한 인도의 땅, 새로움에 지쳐 무엇인가 친근한 것을 찾아 두리번거리고 있었을 때 인도의 하늘이 한반도의 땅을 떠오르게 하면서 내게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민족들을 서로 다르게 만드는 것은 땅입니다. 땅 위에 하늘이 있기에 민족들은 서로 만나고 하늘 밑에

사설

사학법 개정과 법인이사회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뜨겁다. 열린우리당이 이사회 친인척비를 축소 등을 골자로 사학법 개정을 추진한 데 반해, 한나라당은 '사학제도 혁신방안'을 내세워 사학의 권한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사학의 '공공성 확립이 우선'이나 '자율성 강화가 먼저'의 문제는 서로 장단점이 있겠지만 사학비리가 적잖게 드러나는 시점에서 과연 사학의 자율성 확대가 얼마나 용인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친인척위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수백억원의 교비를 착복했던 동해대의 최근사태는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더구나 재단전입금이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사학의 권한강화를 피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한 생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대학 사정을 살펴보면 그 우려가 예의만은 아닌 듯하다. 역대 이사진들이 나름대로 학교발전을 위한 계획수립과 성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과 업무추진에 차질을 빚었던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이사회결과도 이런 우려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상임이사 도입 조항이 특히 그렇다. 이사장을 보좌하고 법인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상임이사제를 도입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 취지가 정상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만일 다른 의도 때문에 마련된 장치라면 보다 투명한 역할과 관계를 보여줘야 마땅하다.

학교의 밝은 미래는 재단의 투명한 운영과 학내구성원의 참여가 선행될 때 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유념할 필요가 있다.

메아리

금(金)욕주의

▲연금술(鍊金術)은 돌이나 값싼 금속을 금으로 변환시키는 기술이다. 중국, 인도, 이집트 등 고대문명에서 시작됐으며, 17세기까지 당대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뉴턴 또한 인생의 늘그막에는 만사를 제쳐두고연금술에 빠졌을 정도였다.

연금술은 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자극했다. 특히 중세유럽 영주들의 세력 확장 야욕을 키우게 했다. 이에 영주들은 연금술사에게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개진 독에 물 붓기' 같지만 당시 사람들은 연금술을 꽤나 믿었던 모양이다.

▲신화의 땅에서 금빛 물결이 출렁이고 있다. 아테네에 성화가 타오른지 일주일일 지난 것이 다. 그런데 대다수 언론은 '金! 金! 金!'만을 대문짝만하게 장식하고 있다. 사람들의 이목이 금메달에 집중됐다. 금이 좋은 까닭인가 보다. 금 판 경기를 지겹도록 방송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금메달선수에게만 축전을 보냈다. 은과 동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입상하지 못한 선수는 아예 관심 밖이다.

▲올림픽 순위 역시 언론에서는 금메달을 기준으로 정한다. 은이 아무리 많아도

금 하나를 앞서지 못한다. '세계인의 평화 축전'에 순위를 매기는 자체가 어울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대 그리스 올림픽도 아마추어 정신을 망각한 채 승리만을 추구하려다 부패했다고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류와 서열을 중시하는 사회풍토는 마찬가지로 보인다.

▲연금술사의 노력은 천 년 이상 계속됐지만 실패만 거듭했다. 욕심이 이 허망했을 뿐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화학 기구가 발명됐다는 것이다. 금에 대한 욕망이 화학의 진보를 가져온 것이다.

그렇다면 금메달로 상징되는 일류를 향한 욕망과 서열화는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혹자는 이런 욕망과 서열화가 경쟁을 촉진한다고 말한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 남과 겨루는 그것 말이다. 이로써 자기계발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렇다. 우리는 무한 경쟁시대에 살고 있다.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다.

갑자기 '스머프의 나라'에 살고 싶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שמ민 편집장 qwertewq@dongguk.edu



한 주를 여는 시

스물 세살

이은유

성큼성큼 뛰어올라 터벅터벅 걷는 더 이상 늙지도 나이를 먹지도 않는 스물 세 살

한 달음에 서른이 되고 마흔이 되고 다시 스물 셋

천방지축 날뛰고 혈레벌떡 내달려 들썩이던 내 인생 스물 세 살까지

-시집 '이른 아침 사과는 발작을 일으킨다' (2004) 중에서

왜 스물 세 살인가. 스물 세 살 어머는 무엇이 있는가. 젊음을 기리고 젊음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가령 이 같은 질문을 우리가 던진다면 어떤 대답을 들려줄까. 이 작품은 그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 하나를 들려주고 있다. 스물 세 살에는 모든 일이 가능성만으로 열려 있는, 그러면서도 남달리 날카로운 통점(痛點)을 투성이의 감각이 있다. 곧 천방지축 날뛰고 혈레벌떡 내달릴 수밖에 없는 열정과 분방함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 삶이 만일 이 위대한 젊음에만 멈춰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홍신선 예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동국만평

신동규 korea2324@hanmail.net



동대신문 제1389호(5월 24일자) 퍼즐 당첨자는 임하녀(행정4), 손진리(신방2), 김수정(국제2)입니다. 편집실로 오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주간)

Table with 2 columns: Role (발행인, 편집인, 부주간, 편집국장, 편집장) and Name (홍기삼, 고재석, 구본철, 류변성, 최성민). Includes contact info for internet and phone.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9-1270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제1회 동국 독서 퀴즈왕 선발대회

중앙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도서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제1회 동국 독서 퀴즈왕 선발대회를 개최합니다.

- 1. 일시 : 2004년 9월 15일(수) 오후 2시
2. 장소 : 팔정도 불상암(우천시 체육관)
3. 시상 내역 : 총장 장학금 독서 대상 100만원(1명), 총장 장학금 독서 우수상 70만원(1명), 총장 장학금 독서 장려상 30만원(1명)
4. 참가 자격 : 본교 서울캠퍼스 재학생(학부생)을 대상으로, 50명을 선발한다.
5. 접수 : 신청자가 50명을 넘을 경우 최종 선정은 다득자(대출회수/2004.3.2-9.3)순으로 선발한다.
6. 접수 기간 : 2004년 8월 23일(월) - 9월 3일(금)
7. 진행 형식 : 가. '보전 골든벨' 형태로 진행된다. 나. 인문, 사회, 자연, 불교, 도서관 이용등 각 주제 분야별 10문제씩 총 60문제를 단답형으로 출제한다.
8. 기타 : 참가자 전원에게는 도서상품권(5천원권) 1매를 증정한다.

<제1회 동국 독서 퀴즈왕 선발대회 예상문제>

- ▶ 도서관이용 : 문) 학부생 도서 대출 기간 및 책수는? 답) 14일 5책
▶ 사회 : 문) 이 책은 제1의 물결인 농업단계, 제2의 물결인 산업단계를 거쳐 제3의 물결인 현재 진행중인 단계로 분류하여 혁신적인 오늘날 세상의 변화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은 '제3의 물결'이죠. 그럼 이 책을 지은이는 누구일까요? 답) 앨빈 토플러
▶ 인문 : 문) 동국대학교의 자랑스런 동문인 조재정 작가는 구한말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민족사를 다룬 '이리랑', 해방이후 이념 갈등을 다룬 '태백산맥'이 있습니다. 또 1959년 4.19 전야부터 4.19. 5.16, 10월 유신과 부마 항쟁, 광주민주화 운동과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세월을 10권의 책으로 묶은 대하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무엇일까요? 답) 허강
▶ 자연 : 문) 조선 시대에는 많은 의학서가 있습니다. 조선 광해군때 우리나라 의학을 집대성한 허준이 쓴 의서는? 답) 동의보감
▶ 불교 : 문) 서양에서도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출가하는 외국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인으로 하버드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에서 활발하게 포교 활동을 하는 스님이 있습니다. 그 스님은 '헝가스님'이죠. 몇 년전 이 스님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데 이 스님이 쓴 책의 이름은? 답) 허버드에서 화계사까지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200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기간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1. 기간 : 2004. 8. 25(수) 08:00부터 ~ 8. 27(금) 24:00까지, 3일간. * 야간에 개설되는 전공 및 교양과목은 8월 25일 오후 6시 이후에 수강신청 정정 시작.
2. 장소 : 교내 컴퓨터실습실(시간표 책자의 실습실 안내 참조) 및 교외(인터넷).
3. 대상 : 2004학년도 2학기 재학생.
4. 수강신청 과목확인 : 본인의 이메일 및 학교 홈페이지의 수강신청조회에서 확인.
5. 유의사항 : 가.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PC로 정정. (세부절차는 시간표 책자 참고). 나. 교과목, 학수번호, 강좌번호 및 담당교수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다. 시간표의 변경사항(분반, 폐강 등)은 조정강의시간표를 참조하고, 강의실 변경을 포함한 최종 변경사항은 본교 홈페이지의 수강신청확인란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라. 자유선택 사이버과목의 수강신청은 정보통신부의 사이버강좌를 포함하여 한 학기에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분반으로 인하여 수강강좌가 변경된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변경합니다. 바. 수강신청 정정 후 별도의 확인원을 교과과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무처

중앙도서관 · 학생처

잠재된 여성성을 표현하다

패션·미용 등에 관심 갖는 신 남성상 '메트로 섹슈얼' 특권문화 형성 지양위해 거부감 없애야

"남자들은 맨얼굴이 최고지~"라고 한 중년배우가 말한다. 뒤이어 화면이 바뀌며 얼굴에 하얀 팩을 한 젊은배우가 "남자들이 하는 첫 번째 마스크 팩"이라고 말한다. 한 화장품 회사의 남성용 팩 광고다. 중년배우의 말을 무색하게 한 그 젊은배우는 우리에게 흔히 '꽃미남'이라 불리는 깨끗한 피부에 잘생긴 얼굴의 연기자이다.

이제 화장품 광고는 여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더불어 화장품도 여성용 일색인 시대가 지나고 있다. 스킨과 로션뿐이었던 남성용 화장품이 이제 주름 방지 에센스, 미백용품, 마스크팩 등 10여종에 이른다.

남성들의 관심은 이같은 피부미용뿐만이 아니다. 헬스클럽을 다니면서 몸매를 가꾸고, 이발소가 아닌 미용실을 다니며 각종 액세서리를 하는 남성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것은 이미 오래전이다.

이렇듯 쇼핑물, 휘트니스 센터, 미용실 등이 인접한 도시(Metro)에 살면서 패션, 미용, 인테리어, 요리 등 여성적(Sexual) 라이프스타일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남성을 '메트로 섹슈얼(Metro Sexual)'이라고 한다. 이것은 영국 작가 마크 심슨이 인디펜던트지에 처음 소개한 말로 외모를 중시하는 젊은 남성들의 새로운 변화를 빗대어 사용했다.

요즘 의상업계나 화장품 업계에서 신제품을 출시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는 대상이 바로 메트로 섹슈얼 쪽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은 바야흐로 개척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명동의 한 화장품 가게 지점장 구자성씨는 "요즘 20대 남성들이 팩, 에센스, 자외선 차단제 등을 직접 구입하는 경우가 예전보다 늘었다"고 말한다. 실제로 화장품 가게에서 화장품을 고르는 남성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본교에서도 조금씩 조성되고 있다. 이진성(전자2)군은 "최근 호기심으로 요구르트팩이나 마스크팩을 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 앞으로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한다. 또한 김호중(컴공1)군은 "얼굴의 여드름 때문에 주위 권유로 얼마 전 처음 했는데 앞으로 해 볼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남자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에는 좀 어색하다"는 김군의 말과 "관심은 있으나 아직 해본 적은 없다"는 김근영(국문4)군의 말은 남성들 사이에서 이러한 문화가 아직 덜 자리 잡혔음을 보여준다.

남성이 외모나 체형을 꾸미는 것에 대해 여성들도 긍정적이다. 조윤미(수교04졸)양은 "남자친구에게 피부관리 차원에서 꾸준히 화장품을 선물로 주고 있으며 남자친구도 매우 좋아한다"고 말한다. 또한 대학원생인 김민진(교육학 석사과정) 양도 "남성이 외모관리나 체형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언론매체 등에서 특정 연예인을 통해 그들처럼 고급 옷을 입고 고급 헬스클럽과 식품 등을 즐기는 것만이 메트로 섹슈얼인 양 보여주는 것은 자칫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경제적 여유를 갖고 고급문화를 향유하는 특정 계

층만이 메트로 섹슈얼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메트로 섹슈얼은 이전의 남성상만을 고집하던 보수적인 시대에서 좀 벗어난 신남성상에 다름 아니다.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아닌, 그 둘을 오가면서 점차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이질인 것이다.

결국 메트로 섹슈얼을 물질적 특권계층으로 만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시각에 달린 셈이다. '그들은 나와 다른 존재'라는 시각이 아닌 '남성도 여성성을 내재하고 그것을 표현하려는 성향이 있음'을 인정하는 시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화려하지 않게 멋 내는 남성 선호

액세서리는 조금만 ... 옷·헤어 스타일 관심 가져야

메트로 섹슈얼에 대해 본교 여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본교 여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자신이 더 선호하는 남성상에 대해 스티커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피부미용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각각 22명과 28명이 선택해 피부관리를 하는 사람보다 원래 피부가 좋은 사람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미용에 무관심한 사람을 택하는 여학생들의 대부분은 그

이유로 "이를 관리하는 사람은 대체로 성격이 까다롭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까무잡잡한 피부를 가진 남성(29명)을 하안피부를 가진 남성(21명)보다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본교 여학생들은 살이 많거나 약간 있는 체형(30명)에 근육질(27명)의 남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마른체형(20명)이며 근육이 별로 없

는 사람(23명)도 적지 않은 수치를 보여줬다.

한편 남성의 액세서리 착용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귀걸이를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 단편적으로 알아본 결과 하지 않은 사람이 36명의 학생이 선택해 액세서리 착용에는 다소 부정적인 면을 보였다.

그러나 자신의 옷과 헤어스타일에 관심을 갖고 쇼핑을 즐기는 사람을 각각 42명의 여학생이 선택한 것으로 보아 자신을 꾸미고 관리하는 남성에게 여성들이 좀 더 호감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부
culture@dongguk.edu

떠오르는 문화계 직업을 찾아서

작은 유리구슬로 다양한 미를 창조한다

구슬공예전문가

다양한 구슬로 만든 액세서리로 개성을 표현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적은 비용으로 세련된 멋을 낼 수 있어 각광받는 재료인 구슬. 이를 이용해 장신구, 생활용품 등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구슬공예전문가이다.

구슬공예는 비즈공예라고도 불린다. 이는 처음에 취미로 시작한 사람들이 손수 만든 제품을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면서 최근 1~2년 새 많이 알려지게 됐다.

현재 구슬공예교육 및 제품판매를 자체적으로 해 수료증 및 자격증을 주는 곳은 많다. 그 중 (사)한국구슬공예협회는 현재 전국에 50개 이상의 (주)비즈갤러리 지점을 가진 국내에서 가장 큰 구슬공예 전문 단체이다.

(주)비즈갤러리는 구슬공예를 일반인들에게 교육하고 재료 및 완제품을 파는 곳이다. 각 지점에는 취미반, 직조반, 와이어반, 전문가반, 창업반으로 나뉘어 개인의 목적에 맞게 공예를 배울 수 있다. 특히 전문가반, 창업반 수강생은 자신만의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 20~30대의 여성이 대부분이다. 전문가반 수강생 유은미(27)씨는 "전망이 있다고 생각해 시작했고 강사 자격증 취득 뒤에 전문 강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비즈갤러리에서 약 3개월간의 고급과정을 수료하면 (사)한국구슬공예협회에서 발급하는 구슬공예 강사 자격시험 응시 기회가 주어진다. 시험은 직접 창작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고 작품을 만드는 등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는 지난해 11월을 처음으로 매년 3월, 7월, 11월에 치러진다. 직업교육 전문기관인 (사)한국능력개발원 사회교육원에 서도 오는 25일 '비즈아티스트 자격증'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또한 숙명여대 디자인 대학원에서는 대학 최초로 비즈아트·디자인 전문과정을 개



구슬로 만든 동물모양의 장식품(좌)과 액세서리(우).



1:1공예강좌를 하는 모습

설했다. 강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초·중·고등학교 특별활동 시간 및 구청의 문화강좌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적은 자본으로 인터넷 쇼핑물 또는 상점을 창업하는 이도 많다.

이 대표는 "오는 11월에는 한국구슬공예대전과 같은 대형 박람회가 개최될 뿐만 아니라 구슬이 점차 옷·신발의 장식, 십자수 등의 연계분야로 확장되고 있어 전망이 밝다"고 말했다.

구슬공예는 누구나 하고 싶은 의욕과 관심만 있으면 특별한 재능 없이도 할 수 있다. 또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자신만의 작품을 손수 만들어 냄으로써 얻는 기쁨과 보람이 크다.

다소 생소하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개척이 활발할 수 있는 분야인 구슬공예. 날개로 보면 보잘 것 없는 구슬을 꿰어 값진 보석을 만들어내는 구슬공예전문가에 한번 도전해보자.

최민희 기자
mh705@dongguk.edu

문화단신

악극 '곡예사의 첫사랑'

서커스 악극 '곡예사의 첫사랑'이 오는 29일까지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열린다.

동춘곡예예술단(단장=박세환)은 이번 공연에서 공중극예, 마술, 차력 등 20여 종의 서커스와, 옛 악곡같은 노래를 통해 1960년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용산 시장 언덕배기에 가실 천막을 치고 공연을 시작한 유랑 삼천리 곡마단의 이야기를 담아낸다.

특히 1940~60년대 악극 공연 활동에 직접 참여했던 우리 시대 마지막 악극 스타들인 코미디언 남철·남성남 콤비, 악극 전문 배우 김태랑씨가 매 회 특별출연해 팔순 노모에서 어린이까지 3세대가 함께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2)2280-4065

MBC게임 2004 2nd 챔피언스 데이

MBC게임이 주최하는 '2004 2nd Champions Day'가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잠정체육관에서 열린다.

지난 4월 국내 최초로 열린 뒤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게임 축제는 △28일=싱크마스터배 FIFA 2004 A1리그 결승전, 현대자동차 투싼배 MBC게임 팀리그 결승전 △29일=DAUM게임 워크래프트3 프라임리그 IV결승전, SPRIS MBC게임 스타리그 결승전으로 이뤄진다.

리그전을 통해 올라온 각 분야 최고의 게임 플레이어들이 펼치는 이번 게임축제는 관객들이 게임의 스티와 더불어 다양한 이벤트와 파티를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문의 02)368-2671